한·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일관계 서술 분석

- 중·근세사를 중심으로 -

박 은 영*
(e-mail: kitsne74@naver.com)

目 次

1. 들어가며
2. 중·근세 한일관계 관련 서술 분석
 2.1 왜구
 2.2 조선의 국호와 통교
 2.3 임진왜란
 2.4 조선통신사와 왜관
3. 마치며

1. 들어가며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후 최초로 2006년 12월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그 취지를 반영한 학습지도요령(2008.03)과 해설서(2008.07)가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2011년 3월 30일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1] 이번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발행하는 곳은 총 7개 출판사[2]로 이 중에는 자국중심의 역사관에 기초한 교과서 기술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1) 일본이 전면적인 개정을 한 이유는 1997년판 학습지도요령에서부터 강조하여 온 '여유교육'이 '학력저하'로 사회 문제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에서는 '확실한 학력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과를 위시한 주요 과목의 수업 시수가 증가, 중학교 사회과 경우 지리 15단위 시간(105→120), 역사 25단위 시간(105→130), 공민 15단위(85→100)로 역사적 분야의 수업 시수가 많이 늘어났다.

2) 검정 통과 출판사는 東京書籍, 日本文教出版, 帝國書院, 教育出版, 清水書院, 自由社, 育鵬社 등이다.

www.kci.go.kr

모임'(이하 '새역모'로 약칭)과 '교과서 개선의 모임'(이하 '교개모'로 약칭)이 각각 지유사(自由社)와 이쿠호샤(育鵬社)를 통해 출판한 교과서도 포함되어 있다.[3] 새역모는 1996년 결성된 이래 2001년 후소샤(扶桑社)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통해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강한 자국사 중심주의, 서양 중심주의적 역사인식을 반영한 교과서 기술로 주변 국가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1년, 2005년, 2009년, 2011년 검정에 합격을 했다.

여기에서는 후소샤 관련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4]의 중・근세 한일관계 기사 중 논란이 되었던 왜구, 조선의 국호와 통교, 임진왜란, 조선통신사와 왜관에 나타난 서술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후소샤 관련 교과서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비판과 지적이 되고 있다.[5] 따라서 본고에서는

3) '새역모'는 2005년 채택율이 0.4%에도 못 미치자, 이에 대한 진단과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일어난 내부 분열로 '새역모'(藤岡信勝 회장)와 '교개모'(八木秀次 회장)로 나뉘어졌다. '새역모'측은 기존의 파트너인 후소샤와 결별하고 지유사와 새롭게 손을 잡았고, '교개모'측은 후소샤의 자회사로서 '이쿠호샤'를 설립하였다.

4) **〈표 1〉 분석 대상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구분	집필자	서명	출판사	검정년도
Ⓐ	西尾幹二 外	新しい歴史教科書(市販本)	扶桑社	2001년
Ⓑ	西尾幹二 外	新しい歴史教科書(市販本)	扶桑社	2005년
Ⓒ	加瀬英明	日本人の歴史教科書	(株)自由社	2009년
Ⓓ	藤岡信勝 外	新しい歴史教科書(市販本)	(株)自由社	2011년
Ⓔ	伊藤隆 外	新しい日本の歴史	(株)育鵬社/(株)扶桑社	2011년

〈표 2〉 분석 대상 한국 중학교 역사교과서

구분	교육과정	서명	편찬자	저작권자	발행인	출판년도
Ⓕ	1차(1954.4~1963.2)	중등국사	역사교육연구회	최영해	정음사	1956년
Ⓖ	2차(1963.2~1973.2)	중등국사	문교부	이병도	을유문화사	1965년
Ⓗ	3차(1973.2~1981.12)	중학교 국사	문교부	문교부	한국교과서(주)	1975년
Ⓘ	4차(1981.12~1987.3)	중학교 국사(상・하)	국사편찬위원회	문교부	국정교과서(주)	1982년
Ⓙ	5차(1987.3~1992.6)	중학교 국사(상・하)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부	대한교과서(주)	1991년
Ⓚ	6차(1992.6~1997.12)	중학교 국사(상・하)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부	대한교과서(주)	1997년
Ⓛ	7차(1997.12~2007.2)	중학교 국사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부	(주)교학사	2005년
Ⓜ	2007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상・하)	양호환 외 4인		(주)교학사	2013년

※ 일본은 전후부터 역사교과서를 검정제를 통해 발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2차 교육과정까지는 검정제, 3차~7차 교육과정은 국정제, 2007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검정제(중학교 역사는 2010.3 시행)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분석 교과서 선정에서 국정제는 문제가 없지만, 검정제 시기의 교과서는 2차까지 사이버교과서박물관(http://www.textlib.net)에 보관되어 있는 교과서를 선택, 2007개정 교육과정은 2010년(역사-상), 2011년(역사-하), 2012년(역사-상・하)의 검정결과 모두 검정을 통과한 출판사로 (주)미래엔, (주)교학사, (주)지학사, (주)비상교육 등 4곳이 있다. 그 중 (주)교학사를 선택하였으며, 나머지 검정 통과 교과서와의 서술 비교는 차후에 논하고자 한다.

5)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중・근세 한일관계 기술을 분석한 논고에는 김문자(2003)「전쟁과 평화의 근세 한일관계-임진왜란과 통신사-」『일본역사연구』18 ; 남기학(2003)「중세 고려, 일본관계의 쟁점-몽골의 일본 침략과 왜구-」『일본역사연구』17 ; 손승철(2003)「일본역사교과서의 고려・조선시대 기술의 왜곡실태 분석」『한일관계사연구』19 ; 손승철(2004)「일본의 중・근세 한일관계사 왜곡 실상」『국제한국학연구』2 ; 박수철(2005)「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중・근

www.kci.go.kr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 유의하면서 상대적으로 연구 성과가 적은 한국 중학교 역사교과서속의 한일관계 관련 서술[6]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일 역사교과서의 올바른 서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중・근세 한일관계 관련 서술 분석

2.1 왜구

〈표 3〉 왜구에 대한 일본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검정연도	출판사	서술 내용
2001	Ⓐ扶桑社	**〈日明貿易〉** ❶14世紀後半に中国で建国された明は、日本に倭寇の取りしまりを求めてきた。倭寇とは、このころ朝鮮半島や中国大陸の沿岸に出没していた海賊集団のことである。彼らには、日本人のほかに**❷朝鮮人も多く含まれていた**。❹義満は、さっそくこれに応じて倭寇を禁止し、明との貿易をはじめた。この貿易は、倭寇と区別するために勘合とよばれる合い札の証明書を使ったので、勘合貿易とよばれる。…❺しかし、この貿易は明に服属する形をとったため、義満の死後、それを嫌って中断した時期があった(p.97)。
2005	Ⓑ扶桑社	**〈勘合貿易と倭寇〉** ❶倭寇とは、このころ朝鮮半島や中国の沿岸に出没していた海賊集団のことである。彼らには、日本人のほかに**❷朝鮮人も多くふくまれていた**。❹義満は、さっそくこれに応じて倭寇を禁止し、明との貿易(日明貿易)をはじめた。この貿易は、倭寇と区別するために合い札の証明書(勘合)を使ったので、勘合貿易とよばれる(❺この貿易は明に服属する形をとったため、義満の死後、それを嫌って中断した時期があった)(側註②)。…❸16世紀の中ごろ、勘合貿易が停止すると、ふたたび倭寇がさかんになったが、その構成員は、ほとんどが中国人だった(p.79)。
2009	Ⓒ自由社	**〈勘合貿易と倭寇〉** ❶倭寇とは、このころ朝鮮半島や中国の沿岸に出没していた海賊集団のことである。彼らには、日本人のほかに**❷朝鮮人も多くふくまれていた**。❹義満は、さっそくこれに応じて倭寇を禁止し、明との貿易(日明貿易)をはじめた。この貿易は、倭寇と区別するために合い札の証明書(勘合)を使ったので、勘合貿易とよばれる(❺この貿易は明に服属する形で行われることになったため、義満の死後、それを嫌って中断した時期があった)(側註②)。…❸16世紀の中ごろ、勘合貿易が停止すると、ふたたび倭寇がさかんになったが、その構成員は、ほとんどが中国人だった(p.79)。

세사 서술과 역사인식-후소샤(扶桑社) 교과서를 중심으로」『한국사연구』129 ; 허동현(2005)「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후소샤版) 문제의 배경과 특징-역사기억의 왜곡과 성찰-」『한국사연구』129 ; 손승철(2005)「일본역사교과서 고려・조선시대 기술의 왜곡실태 분석-2005년 후소샤판 검정통과본을 중심으로」『新亞細亞』12-3 ; 김광열 외(2008)『2007년도 검정본 일본역사교과서 분석집』, 동북아역사재단 ; 손승철(2009)「《일본인의 역사교과서》(自由社)의 근세 한국사 관련 서술과 일본 近世史像」『한일관계사연구』33 ; 윤유숙(2009)「2009년 새역모 자유사(自由社) 교과서 중・근세 관련 서술의 검토-조선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역사교육논집』43 ; 윤유숙(2011)「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중・근세 한일관계 분석-2011년도 검정합격본을 중심으로-」『역사교육논집』47 등이 있다.

6) 박현주(1984)「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일관계」『硏究月報』190 ; 윤용혁(1999)「국사교과서의 중・근세 한일관계사 서술」『역사와역사교육』3 ; 김영규(2000)「한국 고교생의 중세한일관계사 이해」『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혜안 ; 현명철(2000)「한국 역사교과서의 근세한일관계사 서술」『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혜안 ; 손승철(2007)「한・일 역사교과서 중・근세 분야 쟁점사항의 비교 분석」『동북아역사논총』17 ; 전영준(2010)「현행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고・중세시기 문화교류 내용 서술과 분석」『동국사학』48 등이 있다.

www.kci.go.kr

2011	Ⓓ自由社	**〈勘合貿易と倭寇〉** ❶倭寇とは、かつて元の襲撃を受けた対馬・壱岐や松浦地方を根拠地とする海賊集団で、日本人のほか**❷朝鮮人が多数ふくまれていた**。彼らは、朝鮮半島や中国大陸の沿岸に出没し、時には数百人にもおよぶ船団を組み、貿易を強要したり、略奪行為をはたらいたりした。❹1404年、当時の室町幕府の将軍、足利義満は、倭寇を取りしまることを条件に、明との貿易(日明貿易)を始めた。この貿易は、倭寇と区別するために、明の皇帝が支給した合い札の証明書(勘合)を使ったので、勘合貿易とよばれる(p.92)。
	Ⓔ育鵬社	**〈明の建国と倭寇〉** ❶14世紀後半の中国では、漢民族によって明が建国され、元は北に追われました。明を苦しめたのは、大陸沿岸一帯に大きな被害をあたえていた海賊でした。彼らは倭寇とよばれました(倭寇は前期(14～15世紀)と後期(16世紀)に分へられる。前期は北九州の日本人のほかに**❷朝鮮人もおり**、おもに朝鮮半島で活動した。**❸後期はその多くが中国人で**、九州や琉球を根拠地として、おもに中国の南沿岸部で略奪と密貿易をくり返した(側註①))。❹幕府は、明の求めに応じ、倭寇の取りしまりに当たる一方で、明との貿易を願い出ました。この貿易は朝貢貿易であり、将軍は明の皇帝に臣下とみなされ、日本国王の称号をあたえられた時期もありました。倭寇と区別するために勘合という合い札を使ったので、勘合貿易(日明貿易)とよばれる(pp.76～77)。

왜구와 관련해서는 Ⓐ-❶ 〈일명무역〉에서 “14세기 후반, 중국에 건국한 명은 일본에 왜구의 단속을 요구했다. 왜구란 이 당시 조선반도나 중국대륙의 연안에 출몰하던 해적집단을 말한다. 그들은 일본인 외에 조선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기술되었던 부분이, Ⓑ-❶, Ⓒ-❶, Ⓓ-❶에서 항목명이 〈일명무역〉에서 〈감합무역과 왜구〉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모두 같게 서술되고 있다. 다만 Ⓔ-❶ 〈명의 건국과 왜구〉에서 “전기는 기타큐슈의 일본인외에 조선인도 있어(Ⓐ-❷～Ⓔ-❷), 후기에는 그 대부분이 중국인으로(Ⓑ-❸, Ⓒ-❸, Ⓔ-❸)” 전기와 후기를 구분 지었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왜구의 발생 원인은 서술되지 않고 있으며, 왜구의 주체를 조선인과 중국인이었다는 부분의 서술에도 변화가 없다.

왜구는 일본 가마쿠라말기부터 남북조 동란기에 서일본의 주민들이 해상에서 벌인 약탈행위를 비롯하여, 한반도와 중국연안에서 자행한 살인, 방화, 노략질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문 해적집단이다. 그들은 대마도 등 근해의 해적들로써 이미 고종 때부터 우리 연해에 출몰하여 충정왕 때부터는 매년 전국 각지에 침투, 심지어는 강화도까지 약탈을 당하여 개경에 계엄령이 내려지기까지도 하였으며, 이 때문에 해상의 조운(漕運)이 끊겨 중앙정부의 재정이 곤란해졌을 뿐 아니라 연해의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14세기 중엽부터 16세기 중엽까지 동아시아 해역에서 해적활동을 함으로써 조선과 중국에 큰 피해를 가져다 준 왜구는 대부분이 일본이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말의 전기 왜구에 대해서는 ‘일본인 외에도 조선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 초의 후기 왜구에서는 ‘구성의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다’로 기술하고 있다.[8]

7) 이찬희(2006)「왜구의 주체, ‘일본인’인가 ‘조선인과 중국인’인가」『東아시아의 역사분쟁-한・중・일 역사교과서의 비교분석』, 동재, pp.61～62.

8) 다나타 다케오(田中健夫)는 ‘왜구=일본인’이라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일본 이외의 지역민들이 왜구에 가

www.kci.go.kr

따라서 '왜구=일본인'이라는 기존의 역사인식을 불식해 보려는 태도로 보이며, 왜구가 왜 출몰하게 되었는지, 일본사의 전개 속에서 배경 설명이 부족하다. 14세기 남북조의 내란 속에서 권력 투쟁에 패배한 영주 내지는 영주의 통제를 벗어난 집단으로 기타큐슈(北九州)와 세토내해(瀨戶內海)의 연안을 근거지로 사무역과 해적 행위를 일삼던 집단임을 증명함으로써 왜구 구성 및 성격을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명의 왜구 단속 요구에 대해 일본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왜구 금지 정책과 함께 명으로부터 받은 감합(勘合)[9]이라는 증명서를 소지한 무역선에 한해 명과의 무역을 허가하였다"(Ⓐ-❹~Ⓔ-❹). 뒤이어 Ⓓ를 제외한 교과서에서는 명과 무역을 시작하는 조건으로 명의 황제에게 복속 또는 조공하는 형태를 취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 무역은 명에 복속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요시미츠(義滿) 사후, 그것을 싫어해서 중단한 시기도 있었다"(Ⓐ-❺, Ⓑ-❺, Ⓒ-❺)라고 서술하면서, 일본의 명에 대한 조공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능하면 일본 우의의 입장을 견지하려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

〈표 4〉 왜구에 대한 한국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출판연도	출판사	서술 내용
1차 교육과정 (1956년)	Ⓕ정음사	**〈홍건적과 왜구의 북새질〉** ❶왜구는 섬나라 일본에서 살기가 곤난하여 작은 배를 타고 남의 나라 해안을 다니는 도적이었으므로…고려에서는 남쪽 해안은 물론, 강화도 근방까지 와서 양민을 죽이고, 도둑질하는 왜구를 방지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청했으나(1368), 일본도 그럴 힘이 없었으므로 ❷최무선(崔茂宣)이 연구한 화룡, 화포로서 왜적을 쪼아 부수고, 육지에 들어온 왜구를 치며, 대마도의 본거지에까지 습격하여 크게 성과를 거두었다(pp.71~72).
2차 교육과정 (1965년)	Ⓖ을유문화사	**〈안팎으로 얽힌 어수선한 문제〉** ❶남으로는 왜구(倭寇)라는 일본의 도둑떼가 해마다 몇 차례씩 배를 타고 우리의 해안 지대에 쳐 들어와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촌락을 불질러 국내를 조란케 하고…❷왜구를 쳐 물리침에는 성계 뿐 아니라 위의 최영·최무선(崔茂宣) 등의 전공도 컸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최무선은 화약과 화포를 만들어 배에 싣고 왜구를 쳐 놀라 달아나게 하였다(pp.91~92).
3차 교육과정 (1975년)	Ⓗ문교부	**〈외적의 침입〉** ❶일본의 해적인 왜구는…고종 때부터 삼남 지방의 해안을 노략하더니, 공민왕 이후로는…해안 지대뿐 아니라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육지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서 개경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왜구의 침입으로 해안 지대의 농민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농토는 황폐해지고, 조세의 해상 운송이 어렵게 되어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일본으로 사절을 보내어 왜구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는 한편, 또 무력으로 다스리는 방법도 취하였다. ❷최영, 이성계 등은 육지에서 여러 차례 왜구를 격파하였고, 최무선은 새 화약 무기를 써서 바다의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 창왕 때에는 박위가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여 큰 공을 세웠으므로, 이로부터 왜구의 세력은 차차 꺾였다(p.91).

담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한반도의 천민집단과 제주도를 왜구와 직결시키는 주장을 폈다(田中健夫(1987)「倭寇と東アジア通商圈」『日本の社會史』, 岩波書店 ; 高橋公明(1987)「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濟州島を中心として-」『名古屋大學文學部硏究論集』〈史學〉 33 참조).

9) 명이 타국과의 통교에 임하여 정식 私船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한 不節. 1404년 이래 「日」「本」2자를 나누어 日本船은 本字號, 明船은 日字號를 휴대하여 왕래하였다. 勘合府라고 한다.

www.kci.go.kr

4차 교육과정 (1982년)	㉠문교부	**〈홍건적과 왜구〉** ❸고려가 개혁 운동을 벌이고 있을 무렵, 북쪽의 홍건적과 남쪽의 왜구가 고려에 침입하여 개혁 운동에 커다란 지장을 주었다.…한편, 고종 때부터 삼남지방의 해안을 노략질하던 왜구는, 공민왕 이후에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육지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소란을 피웠다. 왜구의 침입으로, 해안 지대의 농토는 황폐해지고 조세의 해상 운반이 어렵게 되자, 정부는 무력으로 다스리는 방법도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❶일본 정부에 왜구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❷최영, 이성계 등은 육지에서 여러 차례 왜구를 격파하였고, 최무선은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새로 만든 화포로 바다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 창왕 때 박위가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자, 왜구의 세력은 점차 꺾였다(상 pp.107~108).
5차 교육과정 (1991년)	㉡교육부	**〈홍건적과 왜구의 격퇴〉** ❸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추진하고 있을 때, 밖으로는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해 왔으며, 중국에서 원과 명이 바뀌면서 대외 관계에 큰 변동이 일어났다.…한편, ❶왜구는 쓰시마 섬 등에 근거를 둔 일본의 해적들로서…공민왕 때에는 왜구에게 강화도까지 약탈당하고, 개경이 위협을 받을 정도였다. 이리하여 조세의 해상 운반이 어렵게 되어, 국가 재정이 궁핍하게 되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까지 왜구가 침입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고려는 왜구를 막기 위래 일본과 외교적 교섭도 벌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무력으로 토벌하게 되었다. ❷최무선은 화포를 만들어 왜선을 불태우고, 최영과 이성계는 홍산과 황산 등지에서 왜구의 주력 부대를 무찔렀으며, 박위는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여 그 기세를 크게 꺾었다(상 pp.128~129).
6차 교육과정 (1997년)	㉢교육부	**〈홍건적과 왜구의 격퇴〉** ❸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추진하고 있을 때, 밖으로는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해 왔으며, 중국에서는 원과 명이 바뀌면서 대외 관계에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❶왜구는 쓰시마 섬 등에 근거를 둔 일본의 해적들로서,…공민왕 때에는 왜구에게 강화도까지 약탈당하고, 개경이 위협을 받을 정도였다. 이리하여 조세의 해상 운송이 어렵게 되어 국가 재정이 궁핍하게 되었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에까지 왜구가 침입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고려는 왜구를 막기 위하여 일본과 외교적 교섭도 벌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무력으로 토벌하였다. ❷최무선은 화포를 만들어 진포 싸움에서 왜선을 불태웠고, 최영과 이성계는 각기 홍산과 황산 등지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 이어서 박위는 전함 100척을 이끌고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여 그 기세를 꺾었다(상 pp.134~135).
7차 교육과정 (2002년)	㉣교육부	**〈홍건적과 왜구의 격퇴〉** 공민왕 때에는 홍건적과 왜구가 고려에 자주 침입하였다.…한편, ❶왜구는 일본의 쓰시마 섬에 근거를 둔 해적으로, 일찍부터 해안 지방에 침입하여 노략질을 하였다. 공민왕 때에는 왜구에게 강화도까지 약탈당하고, 개경이 위협을 받을 정도였다. 왜구의 침입으로 조세의 해상 운송이 어려워져 국가 재정이 궁핍하게 되었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❷이때 최영, 이성계 등이 나서서 왜구를 토벌하였고, 최무선은 화포를 사용하여 왜구를 격퇴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어서, 박위는 전함 100척을 이끌고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토벌하여 그 기세를 꺾었다. 이와 같이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등의 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었다(p.117).
2007개정 교육과정 (2013년)	㉤교학사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친 신흥 무인 세력〉** 고려 말에는 홍건적과 왜구가 변방과 해안은 물론 내륙까지 자주 침입하여 큰 피해를 주었다. ❷이때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크게 성장한 이들이 신흥 무인 세력이다.…이성계 역시 외적을 막아 내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 갔다. **〈화약과 화약 무기를 개발한 최무선〉** 최무선은 무기를 다루는 관청에서 일하면서 우수한 화약과 무기를 만들어 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이러한 노력의 결과, 왜구가 침입했을 진포에서 화포, 화통 등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왜선 500여 척을 격파할 수 있었다(상 p.166).

왜구문제에 대해서는 침구 횟수와 규모, 침구 배경과 목적, 고려의 대응책, 고려사회에 끼친 영향 등 다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14세기 후반에 왜구

www.kci.go.kr

가 창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고려 말의 정치적・군사적 난맥상이나 국방력의 약화와 더불어 1333년부터 시작된 일본 남북조시대의 정치적 혼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침구의 목적은 미곡을 중심으로 하는 물자의 약탈과 노동력 확보 또는 매매를 위한 인민의 구략(寇掠)에 있다. 왜구에 대한 고려정부의 대응에 관해서는 종래 무력을 앞세운 토벌이나 대마도 정벌 등과 함께 왜구 근절을 위한 일본과의 외교교섭 등이 검토되었다.[10]

전반적으로 왜구가 고려를 습격하는 상황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최영・이성계 등이 왜구의 격퇴과정을 통하여 무인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교과서에서 왜구의 침략과 약탈만 강조할 뿐 왜구의 출몰 배경과 약탈원인, 성격과 구성, 그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또한 최영・이성계・박위・최무선의 활약으로 크게 승리한 것을(Ⓕ-❷~Ⓜ-❷) 모두 서술하고 있으며, 왜구의 주체에 대한 설명에서는 '왜구=일본인'으로 기술하고(Ⓕ-❶~Ⓛ-❶), 단지 Ⓜ은 본문에서 일본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상 p.166)〉 이라는 지도에서 박위의 대마도 토벌을 설명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일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왜구의 주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전혀 없어 왜구는 무조건 일본인뿐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충 설명도 필요하다. 14세기 중엽부터 16세기 중엽까지 동아시아 해역에서 해적활동을 하여 조선과 중국에 큰 피해를 준 왜구의 대부분은 분명 일본인이었지만 여기에는 중국인과 일부 조선인도 있었다는 보다 객관적인 서술이 요구된다. 또한 왜구가 창궐할 때는 동아시아 전체의 격변기로 이에 대해서는 Ⓘ-❸, Ⓙ-❸, Ⓚ-❸에서 간략히 언급되고 있지만, 14세기 중엽에서 말엽까지 중국은 원・명의 교체기, 일본은 남북조 동란기, 한국은 고려 말의 혼란기로 인해 왜구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시대적 상황도 서술되어져야 할 것이다.

2.2 조선의 국호와 통교

〈표 5〉 조선의 국호와 통교에 대한 일본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검정연도	출판사	서술 내용
2001	Ⓐ扶桑社	**〈東アジアとのつながり〉** ❶朝鮮半島では李成桂が14世紀末に高麗を倒し、**李氏朝**鮮を建国した。❷朝鮮も明と同じく日本に倭寇の禁止と通交を求めてきた。幕府がこれに応じた結果、日朝貿易が始まった。15世紀のはじめには、朝鮮が200隻の船と1万7000人の兵士をもって対馬をおそう事件がおこった。しかし、これは倭寇の撃退が目的だったので、貿易は一時の中断ののち再開した。朝鮮は15世紀中ごろに、対馬の宗氏と条約を結び、宗氏を介さない通交は認めないこととした。しかし、16世紀のはじめに、朝鮮の港に定住した日本人が、役人の扱いに反発して暴動をおこし、鎮圧される事件がおこった。このあと、朝鮮との貿易はふるわなくなった(p.107)。

10) 이익주(2000)「한국의 고려・일본관계사 연구동향」『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혜안, pp.141~142.

www.kci.go.kr

2005	Ⓑ扶桑社	**〈朝鮮と琉球〉** 朝鮮半島では、14世紀に李成桂が高麗をたおし、**❶朝鮮国(李氏朝鮮)**を建国した。**❷**朝鮮も明と同じく日本に倭寇の禁止と通交を求めてきた。幕府がこれに応じた結果、日朝貿易が始まった。しかし16世紀に入ると日朝間の摩擦がおき、朝鮮との貿易はふるわなくなった(p.87)。
2009	Ⓒ自由社	**〈朝鮮と琉球〉** 朝鮮半島では、14世紀に李成桂が高麗をたおし、**❶朝鮮国(李氏朝鮮)**を建国した。**❷**朝鮮も明と同じく日本に倭寇の禁止と通交を求めてきた。幕府がこれに応じた結果、日朝貿易が始まった。しかし16世紀に入ると日朝間の摩擦がおき、朝鮮との貿易はふるわなくなった(p.87)。
2011	Ⓓ自由社	**〈朝鮮と琉球〉** 朝鮮では、倭寇撃退に成果をあげた李成桂が高麗をたおし、1392年、**❶朝鮮国(李氏朝鮮)**をたてた。**❷**朝鮮も、日本に、倭寇の禁止と通交を求めてきた。幕府がこれに応じた結果、日朝貿易が始まった(pp.92~93)。
	Ⓔ育鵬社	**〈朝鮮国の建国〉** 14世紀末、朝鮮半島では李成桂が高麗をたおし、**❶朝鮮国(李氏朝鮮)**を建国しました。**❷**幕府は朝鮮からの求めに応じ、大名に倭寇の取りしまりを命じました。これにより朝鮮との正式な国交が結ばれ、貿易もさかんになりまし)た(p.77)。

먼저 조선의 국호에 대해서는 Ⓐ-❶ “조선반도에서는 이성계가 14세기 말에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씨조선을 건국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이씨조선’을 Ⓑ-❶, Ⓒ-❶, Ⓓ-❶, Ⓔ-❶에서는 ‘조선국(이씨조선)’을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병기하고 있다. 전근대에 성립한 일본의 문헌 중 현재 대외관계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료집으로 손꼽히고 있는 『善隣國寶記』, 『異國日記』[11]도 ‘조선’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신라, 백제, 고려 등의 국호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유독 조선의 국호만을 ‘이씨조선’으로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12]

다음으로 문제시되는 국교의 수립과 양국 간 무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관한 서술이다. Ⓐ-❷ “조선도 명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왜구의 금지와 통교를 요구해왔다. 막부가 이에 응한 결과, 일조무역이 시작되었다”는 Ⓑ-❷, Ⓒ-❷, Ⓓ-❷에서도 모두 같은 내용으로 서술되고 있다. 양국의 관계가 무역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역을 먼저 요구한 것이 조선으로 되어 있다. 다만 Ⓔ-❷에서 “막부는 조선의 요청에 응하여 다이묘에게 왜구의 통제를 명하였다. 이로써 조선과의 정식 국교가 체결되고 무역도 활발해졌다”며 어느 정도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서술하고 있다.

당시 1392년 조선에서는 건국 직후 막부장군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왜구금지를 요청했던 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막부에서는 아시카가(足利)장군 명의가 아니라 승려인 젯가이 주신(絶海中津)의 명의로 조선국왕에게 답서를 보내왔다. 그 서한의 내용은 막부장군이 조선 측의 왜구금압과 피로인 송환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양국의 인호(隣好)를 지킬 것을 약속한다는 것, 그리고 막부장군이

11) 『善隣國寶記』는 京都 相國寺의 승려 端溪周鳳이 저술한 한문 외교자료집으로 15세기 후반에 성립했으며 일본 최초의 외교사서로 알려져 있다. 『異國日記』는 에도시대 초기 막정에 참가한 바 있는 외교승려 以心崇傳(金地院崇傳)이 저술한 외교자료집이다.

12) 윤유숙(2011)「앞의 논문」, p.258.

www.kci.go.kr

조선과의 통교를 적극 원하고 있지만 장군이 직접 외국에 통문(通問)한 일이 없으므로 승려를 통해서 답서를 보낸다는 것이다. 이 내용으로 볼 때, 당시 무로마치 막부도 조선과의 통교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

결국 통교는 조선과 교섭능력이 있었던 대마도와 규슈세력들이 주도했고, 대마도주를 중간매체로 통교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막부로부터의 일본국왕사는 1399년부터 1592년 임진왜란 전까지 총 70회 조선에 도항하였고, 조선은 회례사·보빙사·통신사라는 명칭으로 장군에게 18회의 사신을 파견했다. 당시 조선의 사절파견 목적은 왜구의 금압요청, 피로인의 쇄환, 일본과의 화호(和好) 등 주로 외교적인 목적이었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일본의 국내정세, 왜구의 분포지와 세력관계 등을 정탐했다. 한편 일본국왕사의 목적은 조선초기에는 피로인 송환, 왜구금압에 대한 약속이 주를 이루다가 대장경의 구청(求請), 사찰 건립자금의 조연(助緣) 요청으로 바뀌었으며, 그 이후에는 단절된 외교관계의 회복, 대마도의 권익부활 등으로 변화해 갔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일본국왕사의 실질적인 통교목적은 다른 통교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였다.[14]

이와 같은 전개과정으로 볼 때 조선이 먼저 막부 측에 무역을 요구했다는 서술은 역사적인 사실과 맞지 않다. 대일관계에서 왜구문제의 해결을 당면 과제로 삼고 있던 조선 측이 왜구의 금압을 요청함으로써 막부와의 외교관계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이 막부에 무역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이 막부와의 관계에서 추구하고자 한 것은 외교적인 사안들의 해결이었고, 교역을 추구한 것은 오히려 막부가 파견한 일본국왕사였던 것이다.[15]

〈표 6〉 조선의 국호와 통교에 대한 한국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출판연도	출판사	서술 내용
1차 교육과정 (1956년)	Ⓕ정음사	**〈이씨조선의 일어남〉** ❶위화도에서 돌아온 이후, 군대의 힘을 손에 넣은 이성계는, 토지 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경제적인 세력마저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개경을 중심으로 뭉쳐있던 묵은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으니, 이것이 곧 **이씨조선(李氏朝鮮)**의 시작이었다(1392)(p.81). **〈다른 나라와의 관계〉** ❸조선이라는 국호도 명으로부터 결정 받았고, 매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사신을 파견하였으며…정치적인 왕래와 더불어 문화적인 관계도 더욱 깊어갔다(p.84).
2차 교육과정 (1965년)	Ⓖ을유문화사	**〈새 왕조의 개창과 건도〉** ❶여말 영흥 출신의 귀족으로 개성의 구 세력을 일소(一掃)하고, 이어 왕이 되어 새 왕조를 일으킨 이가 곧 근조선의 태조인 이성계이니, 단기 3725년(서기 1392년) 7월 17일은 바로 그가 개성에서 성대한 즉위식을 거행하던 개국의 첫날이었다. ❷태조는 즉위 초에 모든 것을 전대로 두고 국호까지도 그냥 두더니 이듬 해 2월에 조선이라 고치었다(p.106). **〈명과의 관계〉** 태조는 즉위 이전부터 친명책을 주장하고…(p.117). **〈왜인과의 관계〉** ❺여말 이래 왜구 문제(금지 교섭)로, 일본 막부와의 수교가 성립되고, 사절이 왕래하더니, 세종 초에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한 후로는 교

13) 손승철(2009)「앞의 논문」, p.132.
14) 한문종(2004)「조선전기 일본국왕사의 조선통교」『한일관계사연구』21, pp.15~22.
15) 윤유숙(2011)「앞의 논문」, p.260.

www.kci.go.kr

		통이 막히고 말았다.…❼그래서 대마도 주는 사람을 보내어 사죄의 뜻을 표하고, 교통을 ❽**애걸**하였다. 세종은 마침내 이를 허락하고 이어 3포-즉 제포·부산포·염포를 열어, 왜관을 설하고, 그들의 거류 무역을 허하였다(p.119).
3차 교육과정 (1975년)	Ⓗ문교부	**〈새 왕조의 시작〉** ❶고려 말 정치, 군사, 경제의 실권을 쥐고 있던 ○○○를 넘어뜨리고 왕위에 오르니, 이가 곧 조선 왕조의…(1392)(p.103). **〈대륙과의 관계〉** ❹해마다 정기적으로 혹은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의 사절을 명에 보내어 우의를 두텁게 했으며, 명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성의를 나타내었다. 조선의 이러한 대명 외교는 어디까지나 자주적인 것으로서, 양국 간의 화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명의 선진 문물을 수입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이었다. **〈일본과의 관계〉** ❺왜구는 고려 말 때부터 우리 나라 각지의 연안에 나타나 노략질로 민중을 괴롭혔다. 특히, 산이 많아 농산물의 자급 자족이 어려운 쓰시마 섬은 왜구의 소굴이었다.…❼일본과의 교역이 끊기자, 쓰시마 섬은 더욱 곤경에 빠져 몇 차례 사신을 보내어 통상할 것을 ❽**애원**하였다. 조정에서는 ❻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3포를 열어 무역할 것을 허락하였다(pp.114~115).
4차 교육과정 (1982년)	Ⓘ문교부	**〈조선의 건국〉** .…❶이어서, 신진 사대부 세력은 새 국가 건설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정몽주 등 일부 세력의 반대를 물리치고, 마침내 이성계를 국왕으로 추대하고 조선을 세웠다(1392)(상 p.125). **〈초기의 대외 관계〉** ❹명에 대해서는 명분을 살려 주면서, 사신의 왕래를 통하여 경제적, 문화적 실리를 취하는 외교 활동을 폈다.…국초에 명과 평화적인 친선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라 안의 일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정치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한편 ❻일본과 여진에 대해서는 강경과 회유의 양면 정책을 폈다. ❺일본은 당시 내란이 계속되어 국내가 몹시 혼란하였는데, 그 틈에 우리 해안을 노략질하는 왜구들이 끊이지 않았다. 세종 때에는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는 한편, ❼그들의 ❽**청**을 받아들여 일본인이 통상할 수 있는 3포(제포, 부산포, 염포)를 개항해 주었다(상 pp.135~136).
5차 교육과정 (1991년)	Ⓙ교육부	**〈조선의 건국〉** ❶이어서 사대부들은 정몽주 등 일부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마침내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조선을 세웠다(1392). **〈국호의 제정과 한양 천도〉** ❷조선이란 국호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이다(상 pp.140~141). **〈명과의 관계〉** ❹명과의 외교 관계는 조선 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조선은 명의 명분을 살려 주면서, 사신의 왕래를 통하여 경제적, 문화적 실리를 취하였다. 〈일본 및 여진과의 관계〉 ❺조선 초에도 왜구의 약탈이 계속되자, 조선 정부는 수군을 강화하고 병선을 대량으로 만들고, 무기를 개량하는 등 왜구를 물리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그 후… 교역을 ❽간청해 왔다. ❻조선은 이를 계기로 교린 정책을 써서 교역을 허가하였다. ❼그리하여 세종 때, 부산포, 제포, 염포 등 3포를 열어 일본인의 무역을 허락하였다(상 pp.151~152).
6차 교육과정 (1997년)	Ⓚ교육부	**〈위화도 회군〉** ❶그러나 요동 공격을 반대하던 이성계는 출정 도중에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와 최영 등 반대파를 몰아 내고 정치적 실권을 잡았다.…이어서 신진 사대부들은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고 조선을 건국하였다(1392). **〈한양 천도〉** ❷새 왕조는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였다. '조선'이란 곧 고조선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뜻이며, 단군에게서 민족의 독자성을 찾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상 pp.148~149). **〈명과의 관계〉** ❹조선은 명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여 왕권을 확고히 하고, 나라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였다.…양국은 우호 친선 관계를 유지하였다.…조선은 조공을 통하여 명의 명분을 살려 주면서, 사신의 왕래를 통하여 경제적, 문화적 실리를 취하였다. **〈여진, 일본과의 관계〉** ❻조선은 여진 및 일본에 대해서 교린 정책을 추구하면서 강경책과 회유책을 함께 썼다.…❺고려 말에 크게 소란을 피웠던 왜구는 조선 초기에도 우리 해안에 침입하여 노략질을 그치지 않았다. 이에, 세종 때 이종무 등이 200여 척의 함대를 이끌고 왜구 토벌에 나서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❼그러나 그 후 일본 정부나 쓰시마 도주가 경제적, 문화적 욕구에서 조선과 다시 무역하기를 ❽**간청**해 왔다. 또, 조선에서도 왜구의 침략을 막아야 했으므로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 제한된 무역을 허가하고, 3포를 개항하였다. 3포는 부산포, 제포, 염포이다(상 pp.174~175).

www.kci.go.kr

7차 교육과정 (2002년)	Ⓛ교육부	**〈조선의 건국〉** ❶이어서 그들은 새 나라 건설을 반대한 정몽주 등을 제거하고, 마침내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새왕조를 세웠다(1392). ❷새 왕조를 세운 세력은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고, 도읍을 한양으로 정하였다(p.127).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 …❹이후 조선은 명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였고, 사신을 자주 파견하였다. 명과의 친선 관계를 통해 조선은 경제적, 문화적 실리를 취하였다.…❺한편, 조선은 수군을 강화하여 왜구의 노략질을 막고, 세종 때에는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토벌하였다. ❼그 후 일본이 평화적인 무역 관계를 ❽**요구**해 오자, 조선은 일본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자 제포, 부산포, 염포 등 3포를 개항하였다(pp.129~130).
2007개정 교육과정 (2013년)	Ⓜ교학사	**〈고조선을 계승한 조선〉** ❶고려 말 정도전 등 혁명파 사대부들은 위화도 회군한 이성계와 손잡고 정권을 장악하였다.…그리고 고려 왕조를 지키고자 하였던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파 사대부들을 제거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였다(1392). ❷태조 이성계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상 p.175).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❹조선 건국 직후에 요동 정벌을 추진하면서 악화되었던 명과의 관계는 태종 때 점차 개선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은 명에서 필요한 물자와 우수한 문화를 도입하여 경제적, 문화적 실리를 얻게 되었다.❺세종은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토벌하기도 하였다. ❼그 후 일본이 평화적인 무역 관계를 ❽**요청**해 오자, 조선은 이를 받아들여 부산포, 제포(창원), 염포(울산)의 3포를 개항하여 일본의 구리, 황, 향료 등과 조선의 식량, 서적 등의 문화용품을 교역하였다(상 p.181).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 조선의 건국과 관련해서는 1차 교육과정 교과서부터 기술되어지고 있다(Ⓕ-❶~Ⓜ-❶). 그런데 일본 교과서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씨조선'이라는 표현이 Ⓕ-❶에서도 사용되었지만 이후의 교과서에서는 '조선'으로 바뀌어서 서술되고 있다.

한편 조선의 국호와 관련해서는 Ⓖ-❷에서 간단하게 언급만 되다, Ⓙ-❷부터 "조선이란 국호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이다"를 밝히고 있다. 이후의 Ⓚ-❷, Ⓛ-❷, Ⓜ-❷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조선의 건국과 국호와 관련된 서술은 국내 사실 관계만을 기초로 서술하고 있다. '조선'이라는 국호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전개된 명과 관련된 외적 부분은 Ⓕ-❸에서 "조선이라는 국호도 명으로부터 결정 받았다"로 간략하게 언급될 뿐,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생략되었다. 그리고 뒤이은 '명과의 관계'(Ⓗ-❹~Ⓜ-❹)에서 명과 조선을 대등 관계로 기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역사교과서도 일본 역사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자국사의 우월성을 침해하는 서술은 가능한 회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6]

다음으로 조선 초기의 왜구에 대해선 Ⓖ부터 기술되고 있으며, 여전히 '왜구=일본인'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계속된 왜구의 침략으로 인해 해안지방의 백성들의 피해가 심해지자 정부는 수군을 강화하고 무기를 개발, 함대를 파견하여 대마도를 정벌한 사실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❺~Ⓜ-❺).

또한 일본과의 교류는 교린정책을 원칙(Ⓗ-❻~Ⓚ-❻)으로 하면서 조선 정부의 왜구 격퇴로 침략이 어려워진 왜구들의 무역 요구에 따른 일부 항구 개

16) 박수철(2005)「앞의 논문」, p.217.

www.kci.go.kr

항과 무역의 허용에 대해서는 Ⓖ-❼부터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의 왜구문제에 대하여 조선정부가 왜구를 격퇴함에 따라 약탈이 어려워진 왜구들이 평화적인 무역관계를 요구해 와서 이에 응해 교린정책으로 일부 항구를 개방하여 제한된 무역을 허용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어, 조선은 응징하면서도 관용을 베푸는 나라로 묘사하고 일본은 약탈을 계속하는 나라로 묘사하고 있어 여전히 자국사 중심적인 서술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용어에 있어서는 일본을 하위로 보는 용어를 대등한 입장의 표현들로 교체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애걸'(Ⓖ-❽), '애원'(Ⓗ-❽), '청'(Ⓘ-❽), '간청'(Ⓙ-❽, Ⓚ-❽)을 '요구'(Ⓛ-❽)나 '요청'(Ⓜ-❽)으로 바뀌었다. 이런 변화는 역사적 인식의 변화, 새로운 연구 성과의 출현, 학계의 비판 등을 수렴, 일본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2.3 임진왜란

〈표 7〉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검정연도	출판사	서술 내용
2001	Ⓐ扶桑社	**〈朝鮮への❶出兵〉** 1世紀ぶりに全国の統一を果たして、秀吉の意気はさかんであった。❷秀吉は、さらに中国の明を征服し、天皇も自分もそこに住んで、東アジアからインドまでも支配しようという巨大な夢にとりつかれ、1592(文祿元)年、15万の大軍を朝鮮に送った。…❸しかし、朝鮮側の李舜臣が率いる水軍の活躍や民衆の抵抗があり、明の援軍もあって、戦いは日本に不利になり、明との和平交渉のために撤兵した(**❺文祿の役**)。ところが、明との交渉は整わず、1597(慶長2)年、日本は再び14万の大軍で朝鮮に攻め込んだ…(❻慶長の役)。❹2度にわたって行われた**❶出兵**の結果、朝鮮の国土や人々の生活は著しく荒れ果てた。明も日本との戦いで衰え、豊臣家の支配もゆらいだ(p.121)。
2005	Ⓑ扶桑社	**〈朝鮮への❶出兵〉** ❷秀吉は、中国の明を征服し、天皇とともに大陸に移り住んで、東アジアからインドまでも支配しようという巨大な夢をもついにいたった。1592(文祿元)年、秀吉は、15万あまりの大軍を朝鮮に送った。…❸しかし、朝鮮側の李舜臣が率いる水軍の活躍、民衆の抵抗、明の朝鮮への援軍などで、不利な戦いとなり、明との和平交渉のために兵を引いた(**❺文祿の役**)。しかし、明との交渉はととのわず、1597(慶長2)年、秀吉はふたたび約14万の大軍を派遣した…(❻慶長の役)。❹2度にわって行われた**❶出兵**により、朝鮮の国土や人々の生活は著しく荒廃した。この出兵に、莫大な費用と兵力をついやした豊臣家の支配はゆらいだ(p.97)。
2009	Ⓒ自由社	**〈朝鮮への❶出兵〉** ❷秀吉は、中国の明を征服し、天皇とともに大陸に移り住んで、東アジアからインドまでも支配しようという巨大な夢をもついにいった。1592(文祿元)年、秀吉は、15万の大軍を朝鮮に送った。…❸しかし、朝鮮側の李舜臣が率いる水軍の活躍、民衆の抵抗、明の朝鮮への援軍などで、不利な戦いとなり、明との和平交渉のために兵を引いた(**❺文祿の役**)。しかし、明との交渉はととのわず、1597(慶長2)年、秀吉はふたび約14万の大軍を派遣し…(❻慶長の役)。❹2度にわって行われた**❶出兵**により、朝鮮の国土や人々の生活は著しく荒廃した。この出兵に、莫大な費用と兵力をついやした豊臣家の支配はゆらいだ(p.97)。
2011	Ⓓ自由社	**〈朝鮮への❶出兵〉** ❷全国を統一した後、秀吉は、中国の明を征服し、天皇とともに大陸に移り住んで、東アジアからインドまでも支配しようという壯大な構想をもついにいたった。1592(文祿元)年、秀吉は、15万の大軍を朝鮮に送った。…❸しかし、朝鮮側の李舜臣が率いる水軍の活躍、民衆の抵抗や明からの援軍などで、不利な戦いとなり、明との和平交渉のために兵を引いた(**❺文祿の役**)。しかし、明との交渉は整わず、1597(慶長2)年、秀吉は再び約14万の大軍を派遣した…(❻慶長の役)。❹2度わたった

www.kci.go.kr

		❶出兵により、朝鮮の国土や人々の生活は荒廃した。また、この出兵に莫大な費用と兵力を費やした豊臣家の支配はゆらいだ(p.115)。
	Ⓔ育鵬社	**〈秀吉の対外政策と朝鮮❶出兵〉** また、秀吉は海外進出をこころざし、フィリピンや台湾などに服属を求める手紙を送りました。さらに明への出兵を計劃し、朝鮮に服属と明への出兵の道案内を求めました。❷全国統一を成しとげ、意気さかんだった秀吉は、1592(天正20)年、明への出兵の案内を断った朝鮮に、15万人あまりの大軍を送りました。…❸李舜臣が率いる朝鮮水軍の活躍や民衆の抵抗、明の援軍などで戦いは不利となり、明との講和をはかって兵を引きました(**❺文祿の役**)。しかし、明との交渉はまとまらず、1597(慶長2)年、秀吉はふたたび朝鮮に14万人あまりの大軍を送りました…(❻慶長の役)。❹朝鮮**❶出兵**で、朝鮮の国土や人々の生活はいちじるしく荒廃しました。また、この失敗は、豊臣政権がくずれる原因の一つとなりました(p.97)。

임진왜란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문제시되고 있다. 먼저 임진왜란의 서술에서 사용되는 '출병'이라는 용어의 부적절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❶ 〈조선에의 출병〉 항목에서 "두 번에 걸쳐 행해진 출병의 결과", 이후의 Ⓑ-❶, Ⓒ-❶, Ⓓ-❶에서도 항목명, 내용상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다만 Ⓔ-❶에서는 〈히데요시의 대외정책과 조선출병〉 으로 항목명만 바뀌었을 뿐, '출병'이라는 용어는 소제목에서도 본문내용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출병'이라는 용어는 문자 그대로 '군사를 보내다'라는 의미이다. 이 용어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응징하기 위하여 행해진 군사적 행위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임진왜란 자체가 일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감행된 침략전쟁이라는 사실이 은폐될 여지가 있다.[17]

다음으로 문제시 되는 부분은 임진왜란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18] Ⓐ-❷에서 "중국의 명을 정복하여 천황과 자신도 그 곳에 살면서 동아시아에서 인도까지 지배하려는 거대한 꿈에 빠져들어, 1592년 15만 대군을 조선에 보냈다"는 문구는 이후의 Ⓑ-❷, Ⓒ-❷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서술되고 있다. 다만 Ⓓ-❷에서 '거대한 꿈'이 '장대한 구상'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전쟁 발발의 원인으로서 실질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일본의 국내적 요인인 명과의 감합무역 부활, 제후들의 군사력과 불만의 해소 등은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도요토미가 내세운 명분이나 개인적인 야망을 침략전쟁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은폐, 침략전쟁이라는 사실을 극소화할 뿐만 아니라 도요토미를 전쟁 영웅, 일본 민족의 영웅으로 우상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19] Ⓔ-❷에서는 "전국통일을 이룩하고 의기 충전해진 히데요시는 1592년, 명 출병의 안내를 거절한

17) 윤유숙(2009)「앞의 논문」, p290.

18) 임진왜란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① 豊臣秀吉이 織田信長의 의도를 계승하기 위해 ② 명나라와의 무역이 단절되자 감합무역의 재개를 위하여 ③ 豊臣秀吉 개인의 정복욕 때문에 ④ 豊臣秀吉의 장남 鶴松의 죽음 때문에 ⑤ 경제적 이득을 위해 ⑥ 국내통일과정에서 발생한 大名과 무사들의 불만 해소 등이다(박재광(2005)「임진왜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p.38).

19) 이찬희(2006)「임진왜란, '출병'인가 '침략전쟁'인가」『東아시아의 역사분쟁-한・중・일 역사교과서의 비교분석』, 동재, p.76.

www.kci.go.kr

조선에 15만 명의 대군을 보냈다"는 식으로 조선이 명으로의 안내를 거절한 것이 조선침략의 도화선이 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히데요시는 일본군이 서울과 평양을 함락한 후, 승승장구한 상황에서 대제국을 꿈꾸기에 이른 것이지, 대제국을 꿈꾸어 침략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정확한 서술도 필요하다.[20]

또한 정유재란에 대해서는 "명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1597년 일본은 재차 14만의 대군을 조선에 보냈다"(Ⓐ-❸~Ⓔ-❸)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과 여러 차례 교섭을 시도한 조선의 입장은 외면한 채, 교섭 주체를 명과 일본의 관계에서만 서술하고 있으며, 강화교섭의 내용과 결렬 배경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입어야 했던 막대한 피해와 조선 민족의 참상을 거의 외면한 점이다. Ⓐ-❹에서 "두 번에 걸쳐 행해진 출병의 결과, 조선의 국토와 사람들의 생활은 현저하게 황폐해졌다. 명도 일본과의 싸움에 의해 쇠약해졌으며 도요토미가의 지배도 흔들리게 되었다"로 서술되었던 부분은 이후의 Ⓑ-❹, Ⓒ-❹, Ⓓ-❹, Ⓔ-❹까지 이어지고 있다. 7년간의 전쟁으로 조선은 국토의 황폐화로 경작지가 1/3로 줄고, 강제 연행된 피로인(披虜人)[21], 인구의 큰 감소, 문화재의 손실, 활자・서적・도자기・그림 등의 문화재를 일본에 약탈당하고, 도공, 세공인, 농부, 의원, 학자들이 끌려가, 일본의 전쟁복구에도 동원되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포르투갈과 일본상인들에 의해 세계각지로 팔려나갔다.[22] 명 또한 국력의 쇠약으로 여진족에게 중국의 지배권을 내주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은폐한 교과서는 결국 편협한 국가주의와 자의적인 역사해석으로 히데요시를 영웅시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출병'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침략'으로 바뀌어야 하며, 임진왜란의 발발원인과 침략상을 나타내는 전쟁의 경과나 조선의 피해상황 등을 보다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의 칼럼【히데요시와 필리페2세】에서 "정확히 히데요시가 천하통일을 달성했을 무렵, 스페인에서는 국왕 필리페2세가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고 절정기를 맞이하였다. 아시아에 파견된 스페인 선교사들은 중국의 무력정복과 일본의 이용가치를 서한으로 필리페2세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우연히 히데요시와 같은

20) "조선에 주둔 중인 장수들에게 보낸 (히데요시의) '征明'에의 檄文은, 히데요시가 제1차 조선 침략의 緖戰의 승리 소식을 접한 단계에서 내어진 것이다. 히데요시는 後陽成天皇을 북경에 옮기고, 스스로는 寧波에 거소를 정하여 동아시아에 일대 帝國을 만드는 구상을 세웠으니"(北島万次(1990)『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校倉書房, p.95 ; 손승철(2009)「앞의 논문」, p.90).

21) '피로인'이란 본래 조선 문헌에 사용된 사료 용어이다. 그들이 '임란 중에 일본군에 의해 납치된 민간인 전쟁포로'라는 성격을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한일 양국 학계에서는 '피로인'을 역사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22) 北道万次(1990)『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校倉書房 ; 同(1995)『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 손승철(2003)「앞의 논문」, p.171. 재인용.

www.kci.go.kr

1598년에 사망하여 정복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p.97, Ⓐ : p.121)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히데요시와 필리페2세는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역사적으로도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칼럼을 게재한 것은 일본의 해외 진출과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을 대항해시대 서유럽 국가의 팽창 활동에 빗대어 정당화하려는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행히 Ⓑ교과서 이후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교과서에서 제1차 조선침략을 '文祿の役'(Ⓐ-❺~Ⓔ-❺), 제2차 침략인 정유재란을 '慶長の役'(Ⓐ-❻~Ⓔ-❻)으로 표기하고 있다. 文祿・慶長란 당시의 일본 연호로서 지금까지도 이 명칭은 역사교과서나 일반인 대상의 서적 등에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원래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된 본질이 내선일체, 창씨개명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음을 간파한다면 이것은 적절하지 못한 명칭의 사용이며,[23] 향후 용어의 올바른 사용도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표 8〉 임진왜란에 대한 한국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출판연도	출판사	서술 내용
1차 교육과정 (1956년)	Ⓕ정음사	**〈왜란이 일어나기까지〉** …❶대마도에서는 사신을 보내어 자기들의 사정을 말하고, 무역하여 주기를 애원하므로, 제포, 부산포, 염포의 세 항구에 한하여 허가 있는 배만이 와서 쌀을 사 가도록 허가하여 주었다. 이것이 **왜국**과 처음으로 맺은 조약인데 조선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된 규측을 세웠다. …이러한 **왜국**의 태도를 경계하기 위하여, 군대를 튼튼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이율곡의 의견은 당과 싸움에 눈이 어둔 사람들에게 의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음 날에 큰 국란을 겪게 하였다. **〈왜적의 침입〉** ❷분열되었던 **왜국**을 통일하고, 세력이 커지자 명나라를 치자는 야심이 든 풍신수길(豊臣秀吉)은…선조 25년(1592)에 15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❸이 때 심유경이 **왜장**에게 화의를 제기하자…그 후 다시 화의가 성립되어, 남해안에 머물러 있던 **왜군**은 차차 본국으로 물러갔다. 명과 일본은 계속하여 사신이 오고갔으나 마침내 화의가 결렬되니, 수길은 선조 30년 다시 14만 군대를 보내어 쳐들어와서…❺명의 원군이 힘을 합하여 이듬해에는 평양을 회복하고, 남으로 쫓기는 **왜군**과 싸워, 이여성은 벽제관에서 패하였으나, 권률은 행주에서 잘 싸워 크게 이겼다. **〈왜적이 물러간 뒤〉** ❻**왜적**의 흙발로 짓밟힌 삼천리 강토는…국가적인 보배로운 궁전, 서적, 예술품이 재가 되고 도적당하며, 농촌은 손을 대이지 못한 채 산과 들, 벌판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니…❼**왜국**에서는 풍신수길이 죽은 뒤에, 덕청가강(德川家康)이 나라를 잡더니…문명을 파괴하고 무죄한 백성을 학살하여, 역사에 보기 드문 죄악을 남겨 놓은 **왜국**도 그들 자신이 받은 경제적인 타격이 적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도자기 제조 기술과 활자, 인쇄술을 배워가고 그들의 문화 발달에 도움이 된 바가 많았다(pp.99~103).
2차 교육과정 (1965년)	Ⓖ을유문화사	**〈왜인의 움직임〉** …❶앞서 **왜인**을 위하여 3포를 개랑한 후 그들의 내주자가 점점 늘더니, 중종 때에는 3포 **왜인**의 반란과 제포 **왜인**의 난이 있었고…이러한 때에 그 나라에는 도요또미 히데요시란 자가 일어나, 가장 세력을 펴리고, 다른 호족들을 쳐 이겨, 국내를 통일하고 정치를 독재하였다. 히데요시는 강대한 세력을 믿고 지나친 망상을 일으켜 조선과 명을 침략하려고 하여 먼저 대마도주를 시켜 조선의 내부를 정담케 하였다. **〈제일차(임진)왜란과 이순신의 활약〉** ❷히데요시는 조선에 대하여 명(明)을 틸 터

23) 김문자(1999)「임진왜란에 대한 일본의 시각변천」『역사비평』제46호, p.313.

www.kci.go.kr

		이니 길을 빌리고 그 앞잡이가 되라는 오만한 요구를 하였다. 물론 조정에서는 이를 들을 리 만무하였다. 선조 25년 임진(서기 1592년) 4월에 히데요시는…15만 대군을 주어 조선을 침입케 하였다.…❺그간 우리의 간절한 호소로, 명에서는 마침내 조선을 도와주자 하고 우선 심유경이란 사람을 평양에 보내어 휴전을 꾀하는 체하고, 이여송에게 대병을 주어 조선을 구하게 하였다. **〈제 2차(정유) 왜란과 이순신의 최후 활약〉** ❸앞서 심유경이 화의를 주장할 때 우리 측에서는 반대하였으나…2~3년 동안 화의 교섭의 사절이 오고가고 하더니, 명으로부터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에 봉한다는 국서가 전달되메, 히데요시는 비로서 심유경의 술책에 속은 적을 알고, 드디어 재차 침략을 결행하였다. **〈전란의 영향〉** ❻7년에 걸친 전쟁이 ❼조·명·일 삼국에 준 영향은 대단히 커서, 3국이 다 피폐를 느끼었지만, 그 중에도 우리나라는 적의 침입을 두 번이나 받은 만큼 더욱 심하였다. **왜군**의 분략(焚掠)으로, 국내 각처의 도시와 농촌은 황폐하고, 도서(圖書)·보물 등 귀중한 문화재(文化財)는 소멸 혹은 약탈을 당하였다. 또 전후(戰後) 전란(戰亂) 중에 국내 인구의 소모가 얼마나 많았던가는 넉넉히 상상할 수 있다(pp.125~134).
3차 교육과정 (1975년)	㉦문교부	**〈왜란과 민족의 항쟁〉** ❶조선은 을묘왜변을 마지막으로 일본과의 국교를 끊은 뒤, 비변사를 중심으로 국방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양반 관리들은 안일한 생활에 젖어 국방을 강화하자는 이이 등 일부 선각자의 주장을 외면하였다. ❷이 무렵, 일본에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나라안을 통일하고 정권을 쥐자, 대륙 침략의 야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조선에 대하여 명나라를 정벌할 터이니 길을 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조선이 이를 거절하자, 선조 25년(1592)에 군사를 일으켜 침략해 왔는데, 이를 임진왜란이라고 한다.…❺한편, 육군도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 여송이 이끄는 명의 원군과 힘을 합하여…후방에서는 권율, 김시민 등이 각각 행주와 진주에서 적을 무찔러 크게 이겼다.…❸이에 패색이 짙어진 **왜군**은…중도에서 화의가 깨지자 **왜군**은 다시 대군으로 침입해 왔는데 이를 정유재란이라고 한다(1597). **〈호란과 민족의 항쟁〉 〈두 난의 영향〉** ❻**왜란**과 호란으로 말미암은 피해는 참으로 컸다. 특히, **왜란**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명 피해와 물자의 손실을 가져 왔다. 경복궁과 사고 등을 비롯한 문화재들이 불탔다.…❼또한 **왜란**은 동양의 여러 나라에도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즉, 명은 조선에 대한 거듭된 원조로 국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는 만주 지방의 여진족이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마침내 청나라가 일어났다. 새로 일어난 청의 세력은 조선에까지 미쳐서 또 다시 그 침범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도 전쟁 당사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뒤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전쟁에 비록 실패했으나, 우리의 유학을 받아들여 그들 국학의 기초를 세웠고, 인쇄공과 도자기 기술자들을 데려가 오늘날의 인쇄기술과 도자기 공예의 발달을 가져왔다(pp.135~140).
4차 교육과정 (1982년)	㉠문교부	**〈임진왜란〉** ❶국초에, 일본인이 무역을 할 수 있게 3포를 개항해 주었다. 그러나, 점차 이 곳에 일본인 거주자가 생겨나 폐단이 일어나게 되자, 이들의 무역 활동을 제한하는 계해약조를 맺었다. 이러한 제한에 불만을 품은 일본인들이 때로 3포에서 난을 일으켰고, 남해안을 노략질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거듭되는 난동으로, 마침내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끊어 버렸다. ❷일본은 15세기 중엽부터 오랫동안 내란에 시달리고 있었다. 100여 년 간의 내란을 통일하고 실권을 잡은 인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불평 세력의 관심을 국외로 쏠리게 하고, 아울러 자신의 침략적 야심을 펴기 위해, 명으로 가는 길을 빈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세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1592). **〈민족의 항전〉** …❺초기의 싸움과 달리, 명군의 원조와 우리 겨레의 다각적인 항쟁으로 전세가 날로 **왜군**에게 불리해지자, 이에 당황한 **왜군**은 명의 화의 제안을 빙자하여 남해안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정유재란〉** ❸3년을 두고 끌어오던 화의 교섭이 결렬되자, **왜군**은 다시 북침을 재기하니, 이를 정유재란이라 한다. **〈왜란의 영향〉** ❻**왜란**으로 우리나라가 입은 인적, 경제적, 문화적 손실은 엄청났다.…농토는 황폐하여, **왜란** 전 약 150만 결

www.kci.go.kr

		이나 되던 토지가 **왜란** 직후에는 약 50만 결로 줄어들었다.…무모한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도 많은 인명을 잃었고, 국민들도 큰 고통을 받게 되어, 도요토미 정권에 대한 불평이 폭발하여 도쿠가와 집안에서 정권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약탈된 우리 문물은 일본 문화 발전에 큰 혜택을 주었다.…❼한편,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나라를 도운 명은 그 부담이 커 국력이 쇠약해졌고, 불평 세력들의 반란이 국내 각지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때를 이용하여 만주의 여진족이 명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왜란**은 동북아시아의 역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상 pp.173~179).
5차 교육과정 (1991년)	Ⓙ교육부	**〈임진왜란〉** ❶16새기 말엽, 조선에서는 양반 사회의 모순이 깊어져서 지배층이 분열되고 국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 때, ❷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하여 100여 년간 계속되어 온 내란이 끝나고 통일 국가가 성립되었다. 도요토미는 자신에 대한 불평 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쏠리게 하고, 아울러 자신의 침략적 야심을 펴기 위해 우리나라로 쳐 들어왔다(1592). 이를 임진왜란이라고 한다.…❺그러나 의병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수군이 해상 교통로를 차단하며, 명군까지 합세하여 반격하자, 전세는 **왜군**에게 불리해졌다. ❸쫓기게 된 **왜군**은 화의를 시도하였다. 화의의 교섭이 결렬되자, **왜군**은 다시 침략해 왔다. **〈민족의 항전〉 〈왜란의 영향〉** ❻전란의 피해는 우리나라가 가장 심했으나, 일본과 명도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농토가 심하게 황폐해졌고, 경작 면적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농민의 생활은 비참해졌으며, 전사, 포로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또, 경복궁, 불국사, 사고 등이 불타 문화재의 손실이 컸다.…❼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조선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화재와 선진 문물이 전해져 일본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명은 우리에게 군대를 보낸 부담 때문에 국력이 쇠약해졌다. 이에, 만주에서 일어난 여진족은 명을 쓰러뜨리고, 중국대륙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상 pp.180~184).
6차 교육과정 (1997년)	Ⓚ교육부	**〈임진왜란의 발발〉** ❶16세기 말, 조선은 양반 사회의 분열로 사회적 혼란이 심해지고 국력도 약화되어 갔다. 이때, ❷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하여, 10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온 혼란이 수습되고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 국내 통일에 성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부하 장군들의 관심을 해외로 쏠리게 함으로써 국내의 불평 세력을 무마하고, 아울러 그의 대륙에 대한 침략적 야욕을 펴고자 조선을 침략하였다. 이것이 임진왜란이다(1592). **〈수군의 활약〉 〈의병의 활약〉 〈왜란의 극복〉** ❺의병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해지고, 수군의 계속적인 승리로 전세가 조선 측에 유리해져 가고 있을 때, 명나라의 군대까지 합세하여 반격을 가하였다.…❸**왜군**은 조선군에 대한 공격을 늦추고, 전열을 가다듬기 위하여 휴전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화의의 교섭이 결렬되면서 **왜군**이 다시 침입해 왔다.**〈왜란의 영향〉** ❻7년간의 전란으로 조선이 입은 피해는 컸다.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국토가 심하게 황폐해졌다. 경지 면적이 종전의 3분의 1 이하로 줄게 되어 식량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고…그 밖에 문화재의 피해도 컸다. 경복궁이 불타 버리고, 실록을 보관한 사고가 소실되었다.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활자, 서적, 그림 등의 문화재를 약탈해 갔고, 또 도자기 기술자와 학자들을 납치해 갔다. 이는 일본의 문화 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❼임진왜란은 또 북쪽의 여진족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하였으니, 조선과 명이 전쟁에 시달리는 동안 여진족은 힘을 비축하여 급속히 성장하였다(상 pp.189~192).
7차 교육과정 (2002년)	Ⓛ교육부	**〈왜군의 침입〉** ❶조선이 양반 사회의 분열과 군역 제도의 문란으로 국방력이 약화되어 가던 16세기 말…❷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여 년에 걸친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여 통일 국가를 이룩하였다. 도요토미는 불평 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쏠리게 하고 자신의 대륙 진출 야욕을 펴기 위해 조선을 침략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서양에서 들어온 조총으로 군대를 무장시키고, 침략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그리고는 명을 정복하러 가는 데 길을 빌리자는 구실을 내세워 ❹20여만 명의 군사를 출병시켰다. 이를

www.kci.go.kr

		임진왜란이라고 한다(p.147). **〈수군과 의병의 활약〉 〈왜란의 극복〉** ❺수군이 승리를 거두고 의병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무렵, 명의 원군까지 도착하여 조선은 **왜군**에 반격을 가하게 되었다.…❸그러나 3년간을 끌어 오던 화의 교섭이 실패하자, **왜군**은 다시 공격해 왔다(정유재란, 1597). **〈왜란의 결과〉** ❻7년간의 전쟁은 조선의 승리로 끝났고, 일본의 침략 의도는 좌절되었다. 일본은 조선의 항복을 받지도 못했고, 영토를 얻지도 못했다. 그렇지만 이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조선이었다. 전 국토가 황폐하여 경작지가 전쟁 전에 비해 3분의 1 이하로 줄고, 인구도 크게 줄어들었다.…문화재의 손실도 매우 커서 경복궁, 불국사, 사고 등이 불에 타 버렸고, 활자, 서적, 도자기, 그림 등 많은 문화재를 일본에 약탈당하였다. ❼임진왜란은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뀌었고, 명도 전쟁으로 국력이 쇠약해져 결국 만주의 여진족에게 중국의 지배권을 내주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화재와 선진 문물이 일본에 전해져, 일본은 문화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pp.147~150).
2007개정 교육과정 (2013년)	Ⓜ교학사	**〈임진왜란, 대비 없이 맞은 전쟁〉** ❶16세기 말, 양반 사회의 분열과 군역 제도의 문란 때문에 조선의 국방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❷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여 년의 전국 시대를 끝내고 일본을 통일하였다. 그는 일본 국내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지방 세력가들의 힘을 밖으로 돌려 대륙을 침략하려 하였다. 일본은 침략에 앞서 조총으로 군사들을 무장시키고, 군사 제도를 개편하였다. 그리고 명을 치려고 하니 길을 빌려 달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하였다. 이를 임진왜란이라고 한다(1592)(상 p.202). **〈조선을 지키는 의병과 수군〉 〈왜란의 극복과 그 결과〉** ❺의병의 활약과 수군의 승리로 전세가 조선에게 유리하게 바뀌게 될 무렵, 명에서 원군이 도착하였다. …❸결국 3년간의 휴전 협상이 실패하게 되자 **왜군**은 다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이를 정유재란이라고 한다.…❻임진왜란의 국내에서는 수많은 인명이 죽거나 다치고 토지가 황폐해져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식량도 부족해졌다. 문화재의 손실도 매우 커서 불국사, 사고 등이 불에 타 버렸고, 활자, 서적, 도자기, 그림 등 많은 문화재를 일본에 약탈당하였다(상 pp.203~204). **〈광해군, 전란을 수습하고 중립 외교 노선을 걷다〉** ❼임진왜란이 끝난 후 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뀌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웠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명이 임진왜란에 참전한 이후에 국력이 쇠약해져 갔다. 만주 지역의 누르하치는 이 틈을 타서 여진족을 통일하고 17세기 초에는 후금을 건국하였다. 그 뒤 후금의 세력은 명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게 되었다(상 p.206).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과 관련된 항목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임진왜란이다. 그런데 일본이 국호를 왜에서 일본으로 바꾼 것은 이미 7세기후반의 일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일본', '일본군', '일본인'이라고 표기해야 하지만, 본문 상에서 '왜적', '왜국', '왜란', '왜군', '왜인', '왜장' 등의 호칭과 병행 서술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멸시관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국의 교과서가 '민족주의' 색채가 강하다는 것도 이러한 서술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무고한 백성을 희생시키고 이웃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준 '침략' 행위를 비판하는 것과 이를 감정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을 '멸시'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24] 이런 점에서 '임진왜란'이라는 명칭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최근 국내학계의 움직임도 주목된다.[25]

24) 박수철(2005)「앞의 논문」, pp.222~223.

www.kci.go.kr

먼저 임진왜란 발발 전 일본의 간곡한 무역 요구로 조선정부가 3포를 개항하지만, 이곳에 일본인 거주자가 생겨나면서 여러 폐단이 일어나 조선정부가 계해약조(癸亥約條)를 통해 무역 활동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자 3포 왜란과 을묘왜변이 일어나 이에 조선은 비변사를 설치하지만, 16세기말 붕당정치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등 교육과정이 개정 될수록 자기 비판적인 원인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서술을 보이고 있다(Ⓕ-❶~Ⓜ-❶).

그리고 임진왜란의 원인에 대해선 Ⓕ-❷~Ⓗ-❷까지는 히데요시의 전국통일과 대륙정복의 야욕만을 기술하고, Ⓘ-❷이후는 히데요시가 불평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자신의 대륙정복 야욕을 펴기 위해 침략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20만 명의 군사를 출병시켰다는 표현(Ⓛ-❹)은 종래 일본 교과서에서 문제가 되었던 '출병'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26] 그리고 1597년 일어나는 정유재란에 대해선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강화교섭의 결렬배경[27]에 대한 설명 없이 Ⓕ-❸~Ⓜ-❸에서 "화의 교섭이 결렬되자 재차 침입하였다"라고만 서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❺~Ⓜ-❺까지의 기술을 보면 명의 참전 배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명의 참전이 외면상으로는 조선의 요구에 의한 구원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히데요시가 동아시아 외교질서를 붕괴시켰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본을 응징할 목적과 명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회복하고 명의 안전을 위해서 참전한 것이므로 이런 사실을 교과서에 서술하여 한일 양국 관계가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임진왜란에 의한 조선의 인적・물적 손실과 문화재의 소실 등 전쟁으로 인한 조선의 피해와(Ⓕ-❻~Ⓜ-❻), 이로 인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세력변동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❼~Ⓜ-❼). 반면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화재와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일본문화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조선으로부터 유학, 활자 및 도자기 기술 등 문화적인 전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

25) 김문자는 임진왜란이 갖는 명칭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임진왜란이 동아시아 질서를 뒤흔들어 놓은 국제 전쟁이며 전쟁 후 삼국의 정치 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고 국가 간의 전쟁이었다는 관점에서 '왜란'식의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정리하면서, 대안 명칭으로 '임진전란(壬辰戰亂)', 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제1・2차 침략전쟁',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1・2차 해외침략'을 제시하였다(김문자(2003)「앞의 논문」, pp.10~12).

26) 손승철(2007)「앞의 논문」, pp.79~80.

27) 강화교섭에서 히데요시는 명에게 명의 황녀를 일본의 후비로 삼을 것, 勘合印(무역증인)을 복구할 것, 조선 8도 중 4도를 할양할 것, 조선왕자와 대신 12명을 인질로 삼을 것을 요구하였다. 명나라 사신 심유경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고 사실대로 제시하지 않고 은폐하였기 때문에 1596년 명은 사신을 파견하여 히데요시를 일본국왕에 봉한다는 책서와 금인으로 관복을 수여하였고 여러 장군들에게도 관직을 주었다. 이것을 눈치 챈 히데요시가 받지 않았고 사신을 돌려보낸 후 다시 조선을 침략하게 되었다(田中健夫(1975)「文祿・慶長の役と對馬」『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pp.227~229).

www.kci.go.kr

나 일본문화의 발전을 이룩하였다는 기술은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임진왜란 후의 영향에 대해서는 조선의 피해 사실만을 서술하고 있어, 앞으로는 일본의 피해도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학생들이 임진왜란으로 한일 양국이 모두 많은 피해를 입었고 희생을 치렀다는 교훈을 얻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사교과서에서 조선이 임진왜란을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민족적 우월성을 드러낸 서술도 문제이다. 특히 Ⓜ의 【역사는 흐른다】〈임진왜란, 승리한 전쟁인가?〉(p.205)에서는 표로 각국의 군사 피해를 설명하면서 조선군은 투입 병력이 가장 적고, 조선은 전쟁의 성격과 규모를 예견하지 못하였으며, 군사적으로 대비하지도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전 국토가 황폐해지고 많은 백성이 죽었으며 수많은 문화재와 건물이 불타 없어졌지만, 조선은 왜군을 물리쳤고, 그 원동력으로 무기의 우수성, 우수한 지휘관, 백성의 항전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젠 한국의 교과서도 전란의 극복과 승리만을 강조하기보다 전란을 대비하지 못한 조선의 상황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2.4 조선통신사와 왜관

〈표 9〉 조선통신사와 왜관에 대한 일본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검정연도	출판사	서술 내용
2001	Ⓐ扶桑社	**〈鎖国下の対外関係〉** ❶幕府は、家康のとき、対馬の宗氏をとおして、秀吉の出兵で断絶していた朝鮮との国交を回復した。❷両国は対等の関係を維持し、朝鮮からは、❸将軍の代がわりのたびに**❻通信使**とよばれる使節が江戸を訪れ、各地で歓迎された。また、❹朝鮮の釜山には宗氏の倭館が設置され、約400～500人の日本人が住んで、❺貿易や情報収集にたずさわった(p.131)。
2005	Ⓑ扶桑社	**〈朝鮮・琉球・蝦夷地〉** ❶幕府は、家康のとき、対馬の宗氏を通して、秀吉の出兵で断絶していた朝鮮との国交を回復した。❷両国は対等の関係を結び、朝鮮からは、❸将軍の代がわりのたびに**❻朝鮮通信使**とよばれる使節が江戸を訪れ、各地で歓迎された。また、❹朝鮮の釜山には宗氏の倭館が設置され、約500人の日本人が住んで、❺貿易や情報蒐集にたずさわった(p.106)。
2009	Ⓒ自由社	**〈朝鮮・琉球・蝦夷地〉** ❶幕府は、家康のとき、対馬の宗氏を通して、秀吉の出兵で断絶していた朝鮮との国交を回復した。❷両国は対等の関係を結び、朝鮮からは、❸将軍の代がわりのたびに**❻朝鮮通信使**とよばれる使節が江戸を訪れ、各地で歓迎された。また、❹朝鮮の釜山には宗氏の倭館が設置され、約500人の日本人が住んで、❺貿易や情報蒐集にたずさわった(p.106)。
2011	Ⓓ自由社	**〈朝鮮・琉球・蝦夷地〉** ❶徳川家康は、対馬の宗氏を通して、秀吉の出兵で断絶していた朝鮮との国交を回復した。❷両国は対等の関係を結び、❸朝鮮からは、将軍の代がわりのたびに**❻朝鮮通信使**とよばれる使節が江戸を訪れ、将軍の権威を高めた。また、❹朝鮮の釜山には宗氏の倭館が設置され、約500人の日本人が住んで、❺貿易や情報収集にたずさわった(p.124)。
	Ⓔ育鵬社	**〈朝鮮との関係〉** ❶秀吉による朝鮮出兵の後、朝鮮との関係はとだえていましたが、家康は国交の回復に熱心で、その支援のもと、対馬藩の大名・宗氏により貿易が再開されました。❸朝鮮は1607(慶長12)年、わが国に**❻朝鮮通信使**(朝鮮の国王から派遣された使節団。1811(文化8)年までに計12回の使節が日本を訪れた。側註②)を送りました。以後、将軍の代がかわるたびに江戸に送られた通信使は、東洋の文化を伝える使節として各

www.kci.go.kr

		地で歓迎されました。❹朝鮮の釜山には対馬藩の倭館が置かれ、500人の日本人が住んで❺貿易や情報収集を行った(側註①)(p.107)。

이 항목에서는 국교회복, 조선통신사, 왜관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임진왜란 후의 전후처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국교회복과 관련해서만 서술하고 있다. Ⓐ-❶에서 "막부는 이에야스 시절 대마도의 종씨를 통하여 히데요시의 출병으로 단절되어 있던 조선과 국교를 회복했다"며 임란이후의 국교회복과정을 막부와 대마도 종씨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후의 Ⓑ-❶, Ⓒ-❶, Ⓓ-❶, Ⓔ-❶에서도 변함없이 기술함으로써 역사적 실상을 변질시키고 있다. 7년간의 임진왜란 이후 이루어진 양국의 국교재개는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막부, 대마도, 조선 등 모두의 노력과 필요에 의해서 국교재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설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❷의 "양국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가 Ⓑ-❷, Ⓒ-❷, Ⓓ-❷에서는 "양국은 대등한 관계를 맺고"로 서술의 변화가 있지만, 이는 대등한 관계가 계속 지속된 것이 아님을 은근히 암시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결코 일본과 조선이 대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관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서술을 바꾸어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8]

두 번째로 '통신사'에 대해서는 "조선으로부터 장군이 바뀔 때마다 통신사라 부르는 사절이 에도를 방문하여 각지에서 환영받았다"(Ⓐ-❸, Ⓑ-❸, Ⓒ-❸), 이런 서술은 통신사를 장군에 대한 '조공사절'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29] 이후의 교과서 Ⓓ-❸에서는 "조선으로부터는 장군이 교체될 때마다 조선통신사라 불리는 사절단이 에도를 방문하여 쇼군의 권위를 높였다", Ⓔ-❸ "조선은 1607년 우리나라에 조선통신사를 보냈다. 이후 장군이 교체될 때마다 에도에 보내진 통신사는 동양의 문화를 전하는 사절로써 각지에서 환영받았다"로 서술하면서 이전의 교과서와 동일하게 장군이 바뀔 때마다 왔다는 사실만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조선 측이 보낸 사절의 명칭은 다양하며 '통신사' 명칭은 조선 전기부터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막부 정권은 장군이 바뀔 때마다 그 권위를 국제적으로 보

28) 박수철(2005)「앞의 논문」, p.225.

29) 일본학계가 조선통신사를 조공사절로 보는 주된 이유는 쇼군이 교체될 때 조선국왕이 통신사를 보내 국서를 전달한 데 비해, 통신사에 비견될 수 있는 일본 측 사절(일본국왕사)이 조선에 파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통신사의 파견과정을 잘 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차상으로 볼 때 통신사는 일본이 조선에 먼저 파견을 요청하고 조선이 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에도시대가 되어 일본국왕사가 조선에 파견되지 않은 것은 일본 내에서 무로마치막부, 오다정권, 에도막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조선 외교를 최종적으로 대마번이 전담하게 되었고, 일본 측 외교 사절 역시 대마번이 파견하는 체제가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도시대를 통해서도 조선국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사절(差倭)이 대마번에 의해 꾸준히 파견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윤유숙(2009)「앞의 논문」, p296~297).

www.kci.go.kr

장받기를 원하였고, 조선 측은 이러한 일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축하 사절이라는 이름으로 통신사를 파견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들에 대한 일본 측의 환대는 극진하였으며, 한 자료에 의하면 통신사의 접대에 막부의 1년 예산을 지출했다는 기록도 있다.[30] 통신사는 국왕 외교문서인 국서(國書)를 휴대하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갔으며, 일본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대개 조선에서 당대의 최고 수준에 오른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일본 지식인들과 교류가 가능하였고, 이 덕택에 조선의 한자문화가 일본으로 전래되기 수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통신사는 원래 태평축하, 장군의 후계자 탄생 축하, 장군습직 축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파견되었다.[31] 그런데도 1655년 이후 습직축하로만 고정시켜 서술하는 태도는 조선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에 사절을 파견했지만, 일본은 조선에 국가적 차원의 사절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로 잘못 해석될 여지도 있다. 또한 조선에서 통신사를 파견했다는 점만을 강조하는 서술은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이며, 조・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상대적 우위를 간접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부산왜관을 '종씨의 왜관'(Ⓐ-❹, Ⓑ-❹, Ⓒ-❹, Ⓓ-❹), '대마번의 왜관'(Ⓔ-❹)등의 표현은 왜관이 대마도 번주의 사적인 소유물 내지는 번주 종씨가 주도하여 조선에 설치한 기관이라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왜관은 본래 조선정부가 왜인을 접대하고 수용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었다.[32] 왜관은 조선이 그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설치해 준 사실을 마치 宗氏 왜관인 것처럼 서술한 것은 왜관이 외국 땅에 마련한 일본의 행정기관인 것으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무역 및 정보 수집'(Ⓐ-❺~Ⓔ-❺)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정보기관인지, 행정 기관인지 모호하게 하여 본래의 역할인 '무역 및 외교를 위한 기관'이었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기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통신사를 Ⓑ, Ⓒ, Ⓓ에서 〈朝鮮・琉球・蝦夷地〉라는 항목명에서 설명하고 있다. 17세기 이후 일본의 대외 교섭 대상이 대마도를 통한 조선, 나가사키(長崎)를 통한 중국과 내덜란드, 마츠마에(松前)를 통한 에조치(蝦夷地), 사츠마(薩摩)를 통한 류큐(琉球)였음은 분명하다.[33] 하지만 한일 양국이 '대등한 관계'(Ⓐ-❷~Ⓓ-❷)로 기술하고 있으면서, 막부에게도 신하의 예를 취하고 있던 류큐, 그리고 에조치의 남부를 지배했던 마츠마에번(松前藩)을 서술하고 있는 항목에 조선을 같이 병렬하여 서술한 것은 조선의 위상을 고의적으로 낮추고 은연중 휘하

30) 李元植(1997)『朝鮮通信使の研究』, 思文閣出版 ; 仲尾宏(1997), 『朝鮮通信使と德川幕府』, 明石書店.
31) 송호정(2001)「무엇이 왜곡되었는가-전근대사 서술의 특징」『일본교과서 역사왜곡』, 역사비평사, p.49.
32) 윤유숙(2011)「앞의 논문」, p.268.
33) 한명기(2011)「한국 중세 일본의 조선침략 서술 분석」, 2011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 분석 심포지엄 자료집,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p.30.

www.kci.go.kr

에 두고 있었다는 인식마저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용어 사용의 문제로 Ⓐ-❻은 '통신사', Ⓑ-❻~Ⓔ-❻에서는 '조선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다. '조선통신사'라고 할 경우에는 조선과 일본의 상호관계가 쌍방향의 교류관계가 아니라 일방적 관계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신사'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10〉 조선통신사와 왜관에 대한 한국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출판연도	출판사	서술 내용
1차 교육과정 (1956년)	Ⓕ정음사	**〈왜국이 물러간 뒤〉** ❺왜국에서는 풍신수길이 죽은 뒤에, ❶덕천가강(德川家康)이 나라를 잡더니, 우리나라와 다시 국교를 맺자고 대마도를 통하여 교섭해 왔으므로, ❷조정에서도 사신을 보내어 포로 교환, 무역 관계를 의논하면서, 다시는 도리에 어긋난 침범을 아니 할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다(pp.102~103).
2차 교육과정 (1965년)	Ⓖ을유문화사	**〈일본과의 국교회복〉** ❺일본서는 도요또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 국내가 또다시 어지럽더니, ❶도꾸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이를 평정하고 막부(幕府)를 에도(江戶=지금 동경)에 열고, 실제에 있어 왕노릇을 하였다. 그는 먼저 조선과 화의를 맺으려 하여 대마도주를 통하여 여러번 교섭해 왔으나, 조정에서는 잘 듣지 아니하다가, 선조 40년경에 이르러 허락하였다. 이에 전후하여 ❷일본서는 우리의 호의를 사려고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돌려보내 주었는데, 그곳에 그냥 머물러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도 적지 아니하였다. 도꾸가와 막부와의 수교가 열린 후로는 사절의 왕래가 그치지 아니하였고, ❻대마도와의 통상 무역도 광해군 초로부터 시작되어, 부산에 왜관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저 담배와 고추는 이 즈음 일본과의 교역에서 들어와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p.134).
3차 교육과정 (1975년)	Ⓗ문교부	**해당 내용 없음.**
4차 교육과정 (1982년)	Ⓘ문교부	**〈통신사〉** ❺왜란으로 일본과의 국교가 단절되었다. ❶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정권을 타도한 후, 에도(도쿄)에 막부를 설치하고 일본의 통치권을 장악한 다음, 우리나라와의 국교 회복을 열망하였다.…❷우리나라에서도 이웃 나라와 교린을 하고자 하는 국초부터의 원칙을 살려, 도쿠가와 정권과의 교린을 재개하였다. 그리하여, 교린 정책의 정신을 살려 기유약조를 맺고, ❸일본의 요청에 의해 통신사를 파견하고, 일본배들이 부산항을 드나들며 교역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었다. 통신사는 약 500명으로 편성되었는데, 일본의 정중한 대접을 받으며 왕래하였다. 통신사의 왕래를 통하여 정치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양국 간의 문화 교류도 활발하였다. ❹우리나라 사신이 일본에 상륙하여 에도에 이르는 도중에 일본의 학자, 예술인 등이 찾아와 우리의 문물을 배우고자 노력하였다(상 pp.179~180). **〈국제 무역〉** ❻또 교린 정책에 따라 일본이나 여진의 청을 들어 생활 물자를 교역하는 정도였다.…일본과는 왜관 개시를 통한 무역 활동이 이루어졌다(하 pp.18~19).
5차 교육과정 (1991년)	Ⓙ교육부	**〈통신사의 파견〉** ❺임진왜란 후, ❶일본은 조선에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절을 보내고 다시 통교할 것을 간청하여 왔다. 이에 조선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본인의 내왕과 그들의 무역을 허용하였다. ❸그리하여 많은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오게 되고, 조선에서는 십여 차례에 걸쳐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통신사 일행은 한 번에 약 400명 정도로 편성되었는데, ❹이들은 학술, 예술, 기술을 전해 주는 문화 사절의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전해오는 통신사 행렬도 등에 잘 나타나 있다(상 p.184). **〈국제 무역의 발달〉** ❻또, 우리나라 상인들은 청의 상품을 수입하여 일본에 파는 중계 무역 활동도 하였다. 일본과의 무역 활동은 부산 초량에 설치된 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하 p.16).

www.kci.go.kr

6차 교육과정 (1997년)	Ⓚ교육부	**〈통신사의 파견〉** ❺임진왜란 후, ❶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쓰시마 도주를 통하여 교섭을 허락해 줄 것을 조선에 간청하여 왔다. 조선은 이를 수락하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다시 통교할 것을 허용함으로써 양국 간의 국교가 재개되었다(1609). ❻부산포에 왜관이 다시 설치되고 이 곳에서 일본인들은 쌀, 무명, 인삼 등을 수입해 갔다. ❸일본은 정치적 목적으로 조선에 사절을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해 왔고, 조선에서는 이 요구에 응하여 10여 차례에 걸쳐서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였다. 통신사는 그 일행이 한 번에 400명 정도로 편성되었는데, 학자, 예술인, 기술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❹따라서, 통신사는 외교 사절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진 학문과 기술을 전해 주는 문화 사절의 구실도 함께 하여 일본의 문화 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상 pp.192~193). **〈개시 무역〉** ❻그러나 17세기 이후에 들어와 상업이 발달하고, 청 및 일본과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자연히 무역 활동도 활발해졌다.…일본과는 왜관 개시를 통한 무역이 이루어졌다(하 p.16).
7차 교육과정 (2002년)	Ⓛ교육부	**〈통신사의 파견〉** ❺왜란 후, ❶일본은 조선에 사신을 보내어 통교할 것을 여러 차례 청해 왔다. ❷이에 조선은 승려 유정을 일본에 파견하여 조선인 포로들을 데려온 뒤, 다시 국교를 맺었다. ❻그러나 조선은 일본 상인이 서울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고, 동래의 왜관에서만 일을 보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에 비해, ❸통신사는 일본의 에도(도쿄)까지 가서 막부의 장군을 만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였다. 통신사는 일본의 요청을 받고 일본에 건너가 극진한 대우를 받았으며, ❹일본의 문화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그들이 다녀간 후에는 일본 내에 조선의 문화와 풍속이 퍼질 정도였다(p.150)
2007개정 교육과정 (2013년)	Ⓜ교학사	**〈대외 관계의 변화〉** ❺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임진왜란 이후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다. ❶그러나 새롭게 들어선 에도 막부는 조선과 다시 교류할 것을 희망해 왔다. 이에 조선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용하였다. ❸일본은 막부의 최고 지배자인 쇼군이 바뀔 때 조선에 사절단 파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조선은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❹통신사는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조선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해 주었다(하 p.14). **〈대외 무역의 발달〉** ❻한편, 일본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어 동래에 설치된 왜관을 통하여 대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은, 구리, 황, 후추 등을 수입하고, 인삼, 쌀, 무명 등을 수출하였다(하 p.20)

위와 같이 임진왜란 후 조선과 일본의 외교가 단절되었으나 도쿠가와 막부가 대마도주를 통하여 국교 재개를 요청해옴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 ❶에서 서술하고 있다. 다만 Ⓗ에서는 통신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체 다루고 있지 않다. 먼저, 통신사 파견 배경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므로 막부와 대마도의 관계를 포함한 국내외의 정치·경제 등 다양한 시야에서 서술하고 막부가 일본의 통치권과 외교권의 실권자임을 과시하여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했던 이유도 서술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선이 일본의 국교회복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포로 소환'(Ⓕ-❷, Ⓖ-❷, Ⓛ-❷)과 '이웃나라와 교린을 하고자'(Ⓘ-❷)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여기서 일본으로부터 송환해 온 조선인은 전쟁에 참가한 포로가 아니라, 죄 없이 끌려간 피랍된 조선인 즉 피로인이었으므로 잘못 표기된 용어이다. 국교재개를 추진했던 목적으로 조선은 임진왜란이 종료된 1598년 이후 일본의 침략군을 격퇴시켜 국가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판단했지만, 조선은 일본과

www.kci.go.kr

의 전쟁상태를 공식적으로 종결하여 교린체제를 복구하고, 임진왜란 과정에서 발생한 피로인들을 쇄환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전쟁으로 인한 국교단절의 상황에서 대마도의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가 심각했고, 대마도주는 조선과 통교무역을 시급히 회복해야만 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뒤를 이어 성립된 도쿠가와 막부도 정권을 안정시키고 조선과의 전쟁상태를 완전히 종결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34] 이와 같이 통신사는 조선과 대마도를 포함한 일본 양국의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진행되었던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와 Ⓖ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국교 재개만을 설명하고 있으며, 통신사라는 명칭은 Ⓘ-❸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처음부터 통신사가 파견되었다고 서술하지만, 12회 모두 통신사라는 명칭으로 파견된 것은 아니다. 1604년에는 탐적사로, 1607년 이후 3회에 걸쳐서는 회답겸쇄환사, 1636년부터 정례화되어 1860년까지 모두 9회는 통신사로 파견되었기 때문에,[35] 구분해서 서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리고 Ⓘ-❸부터 Ⓛ-❸에서 일본의 정확한 요청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파견하여 통신사의 대일 활동만을 강조하는 기술을 보이지만, Ⓜ-❸에서는 "일본은 막부의 최고 지배자인 장군이 바뀔 때 조선에 사절단 파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조선은 통신사를 파견하였다"라고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서술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 측 연구자들에 의해서 통신사와 관련한 제도, 상호인식, 문학, 문화교류, 외교체제, 기록류, 복식, 음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다.[36] 이러한 연구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의 의의와 영향을 '조선의 선진학문과 기술을 일본으로 전파'(Ⓘ-❹~Ⓜ-❹)한 사실만을 서술하고 있어, 조선이 전파한 학문과 기술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앞으로

34) 조광(2005)「통신사에 관한 한국학계의 연구성과와 쟁점사항」『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p.9 ; 荒野泰典(1988)「大君外交體制の成立」『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p.225.

35) 1604년 '탐적사'라는 명칭으로 사명당(四溟堂)이 일본국정의 탐색을 목적으로 하여 파견되었고, 1607년에 파견된 사행의 정식명칭은 '회답겸쇄환사'였다. 이 명칭은 국교재개를 요청하는 막부장권의 요청에 회답한다는 명분과 함께 전시 피로인을 송환해 온다는 실리적 목적을 함축한 명칭이었다. 그리고 국교가 정식으로 재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라는 명칭 대신 회답겸쇄환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리고 1636년부터 통신사라는 명칭으로 사행이 재기되었다. 통신사의 파견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장군습직의 축하'였지만 단순히 축하사절만으로는 파견되지 않았다. 17세기의 조선정부는 통신사 파견에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부수적으로 부여하고 있었는데, 1643년 파견된 통신사는 청의 압력에 대한 견제를 의도하면서, 兼帶制度와 島源의 난 등과 같은 일본 국정탐색을 목적으로, 1655년은 일본이 '假道朝鮮'하려 한다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견, 1682년에는 대마도와의 무역통제를 위한 7개조의 朝市約定 등 현안문제의 해결에 목적이 있었다. 이후 1811년 대마도에서 역지통신(易地通信)을 끝으로 더 이상 파견되지 않았다(조광(2005)「앞의 논문」, pp.16~19).

36) 한국에서의 통신사연구 현황은 1960년~2000년까지 외교 체제(9), 상호인식(26), 제도(30), 기록(8), 문학(20), 문화교류(16), 경제(무역)(1), 왜관(2), 복식(4), 선박(1), 음식(2), 회화(6)으로 총 127편이 있다(장순순(2005)「朝鮮時代 通信使 硏究의 現況과 課題-한국측 연구성과를 중심으로-」『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6, p.39).

www.kci.go.kr

는 연구 성과를 반영해 ‘조선-문화시혜국’, ‘일본-문화수혜국’으로 기술할 것이 아니라, 통신사의 인적 교류 역할과 성리학 이외의 선진기술과 문화교류에 대한 내용과 일본 민중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신사의 성격을 외교사절과 문화사절로만 한정시키고 있지만, 통신사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일본의 군사정보를 획득하고 조선의 군사정보를 보호하는 것이었다는 사실도 서술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 ❺에서 통신사 파견 시기를 ‘임진왜란 후’ 즉 ‘조선후기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사절’이라는 전제와 일본의 에도시대로 한정하여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는 조선후기에만 파견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일본에 파견된 조선의 국왕사라고 할 수 있다.[37] 대일본외교에 있어서 조선은 전기와 후기의 조일관계와 외교체제를 일관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신의(信義)로서 이웃나라를 대한다는 ‘교린정책’을 시행하였다. 물론 임진왜란을 계기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조선은 동일 왕조 하에서 사대교린이라는 외교정책의 근본을 유지하였고, 통교체제와 대일인식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었다.[38] 따라서 조선시대 통신사는 전기와 후기를 연속선상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양국의 교과서에서도 조선시대 통신사를 조선후기의 사행만으로 규정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신사의 파견은 조일 양국 간의 쌍방적인 외교관계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당시의 조일관계사를 서술하는데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사행만을 언급하는 것은 균형 감각을 상실한 서술이다.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도 일본이 조선에 파견한 사행에 대해서도 기술함으로써 자국중심주의적인 서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왜관과 관련해서는 “일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부산의 왜관을 통한 대일무역이 개시되었다”(Ⓖ-❻, Ⓘ-❻, Ⓙ-❻, Ⓚ-❻, Ⓛ-❻, Ⓜ-❻)로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있다. 왜관은 ‘왜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등장하였고, 고려말부터 조선 초를 거치면서 왜구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대안으로서, 회유책을 통해 왜구를 통교자로 전환시키려는 조선의 정책이었다. 왜관의 역할은 조선에 오는 일본인들의 거처이자 외교를 위한 공간이었으며, 양국 상인들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상관(商館)이

37) 손승철과 三宅英利은 조선전기에 조선사절의 일본파견은 18회에 달하였는데, 통신사의 호칭으로 장군에게 간 것은 8회(1428・1439・1443・1460・1475・1479・1590・1596년)에 달한다고 하여 통신사의 횟수를 8회로 잡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1460・1475・1590년의 사행은 正使의 發病이나 조난 등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으므로 조선전기의 통신사의 일본파견은 5회였다고 할 수 있다(손승철(2002)「조선시대 通信使硏究의 회고와 전망」『한일관계사연구』16, p.34 ; 三宅英利(1986)『近世日朝關係史の硏究』, 文獻出版 ; 장순순(2005)「앞의 논문」, p.33).

38) 하우봉(1997)「朝鮮後期 韓日關係에 대한 再檢討」『東洋學』27-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p.365.

www.kci.go.kr

기도 했다. 많을 때는 한양을 비롯하여 4곳에, 임진왜란 이후부터 19세기 후반까지는 1곳이 존재하였다.[39] 왜관은 외교, 교역, 문화 교류와 접촉의 공간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지만, 조선 후기의 왜관은 이 의미를 넘어 '조선 정보의 탐색과 수집 장소'로까지 이용되었다. 그리고 왜관은 결국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한론'에 입각한 '조선 침략의 전진 기지'가 되기도 하였다.[40] 그런데도 왜관의 역할을 무역에만 국한해서 서술하는 것은 문제이며, 앞으로는 왜관의 설치 목적, 다양한 역할과 기능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3. 마치며

이상과 같이 한・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중・근세 시기 한일관계 서술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일본 교과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서술되어지고 있다. 왜구와 관련해서는 왜구발생원인, 왜구의 구성원, 조일통교체제 성립과정은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조선국호에 관해서는 조선이라는 국호대신에 이씨조선 또는 이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임진왜란의 침략성은 축소화하려는 의도에서 침략이라는 용어 대신에 출병이라고 기술하고, 전쟁의 원인은 은폐, 전쟁 중에 자행된 인적・물적인 피해에 대해 축소하고 있다. 또한 통신사는 장군습직 축하만을 강조하여 일본 우위의 서술을 하고 있으며, 왜관에 관해서도 종씨의 왜관으로 기술하는 등 사실을 왜곡 또는 은폐・축소하고 있다.

한국 교과서는 왜구와 관련해서 왜구의 침략과 약탈만 강조할 뿐 왜구의 출몰 배경과 약탈원인, 성격과 구성은 외면한 채, 왜구를 통한 당시의 한일관계사보다는 최영과 이성계의 대두라는 측면에서만 강조되고 있어, 한국사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임진왜란은 지금까지의 서술처럼 단순하게 임진왜란의 전개과정과 영향에만 치우진 기술에서 벗어나 임진왜란의 성격 규명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왜란의 영향을 서술하는데 있어서도 고대문화 전파와 같은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일본의 문화 발전은 임진왜란의 한 영향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문화적 발달을 위해 왜란을 일으킨 것처럼 오해할 소지의 서술 형태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사는 조선전기 사행은 언급되지 않고, 모두가 조선후기, 에도막부의 주요한 특징으로 한정지어서 서술하고 있으며,

39) 1426년 삼포(부산포(釜山浦)·내이포(乃而浦) ·염포(鹽浦))에 왜관을 설치, 상경하는 일본 사자들을 위해 수도 한양에 별도로 동평관(東平館)을 설치하였다 .1607년 두모포(豆毛浦 : 현 부산 수정2동)에 1만여 평 규모의 왜관을 설치하고 1609년에는 서울에 있던 동평관을 폐지하였다. 두모포는 1678년에 초량 왜관으로 옮겨 1872년까지 약 200년간 조일외교의 무역의 장이 되었다.

40) 한명기(2010)「조선후기 왜관의 역사적 의미」『한일역사의 쟁점 2010』1, 경인문화사, pp.234~265.

www.kci.go.kr

통신사 파견에서 조선 측 입장만을 강조하기보다 일본에서 통신사 파견이 가지는 의의와 내용도 객관적으로 서술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한・일 역사교과서가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자국중심적, 자국우월적인 역사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한 일방적인 기술에서 벗어나 객관화해 가는 기술이 필요하며, 양국관계의 기본적인 역사사실을 충실하게 반영시켜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특정 역사에 대한 사실 인식과 의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태도도 가짐으로써 앞으로의 역사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김광열 외(2008)『2007년도 검정본 일본역사교과서 분석집』, 동북아역사재단
김문자(1999)「임진왜란에 대한 일본의 시각변천」『역사비평』제46호
_____(2003)「전쟁과 평화의 근세 한일관계-임진왜란과 통신사-」『일본역사연구』18
김영규(2000)「한국 고교생의 중세한일관계사 이해」『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혜안
남기학(2003)「중세 고려, 일본 관계의 쟁점-몽골의 일본 침략과 왜구-」『일본역사연구』17
박수철(2005)「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중・근세사 서술과 역사인식-후소샤(扶桑社) 교과서를 중심으로」『한국사연구』129
박재광(2005)「임진왜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박현주(1984)「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일관계」『硏究月報』190
손승철(2002)「조선시대 通信使硏究의 회고와 전망」『한일관계사연구』16
_____(2003)「일본역사교과서의 고려・조선시대 기술의 왜곡실태 분석」『한일관계사연구』19
_____(2004)「일본의 중・근세 한일관계사 왜곡 실상」『국제한국학연구』2
_____(2005)「일본역사교과서 고려・조선시대 기술의 왜곡실태 분석-2005년 후소샤판 검정통과본을 중심으로」『新亞細亞』12-3
_____(2007)「한・일 역사교과서 중・근세 분야 쟁점사항의 비교 분석」『동북아역사논총』17
_____(2009)「《일본인의 역사교과서》(自由社)의 근세 한국사 관련 서술과 일본 近世史像」『한일관계사연구』33
송호정(2001)「무엇이 왜곡되었는가-전근대사 서술의 특징」『일본교과서 역사왜곡』, 역사비평사

www.kci.go.kr

윤유숙(2009)「2009년 새역모 자유사(自由社) 교과서 중・근세 관련 서술의 검토-조선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역사교육논집』43
_____(2011)「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중・근세 한일관계 분석-2011년도 검정합격본을 중심으로-」『역사교육논집』47
윤용혁(1999)「국사교과서의 중・근세 한일관계사 서술」『역사와역사교육』3
李元植(1997)『朝鮮通信使の研究』, 思文閣出版
이익주(2000)「한국의 고려・일본관계사 연구동향」『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혜안
이찬희(2006)「왜구의 주체, '일본인'인가 '조선인과 중국인'인가」『東아시아의 역사분쟁-한・중・일 역사교과서의 비교분석』, 동재
_____(2006)「임진왜란, '출병'인가 '침략전쟁'인가」『東아시아의 역사분쟁-한・중・일 역사교과서의 비교분석』, 동재
장순순(2005)「朝鮮時代 通信使 研究의 現況과 課題-한국측 연구성과를 중심으로-」『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6
전영준(2010)「현행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고・중세시기 문화교류 내용 서술과 분석」『동국사학』48
조 광(2005)「통신사에 관한 한국학계의 연구성과와 쟁점사항」『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하우봉(1997)「朝鮮後期 韓日關係에 대한 再檢討」『東洋學』27-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한명기(2010)「조선후기 왜관의 역사적 의미」『한일역사의 쟁점 2010』1, 경인문화사
_____(2011)「한국 중세 일본의 조선침략 서술 분석」, 2011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 분석 심포지엄 자료집
한문종(2004)「조선전기 일본국왕사의 조선통교」『한일관계사연구』21
허동현(2005)「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후소샤版) 문제의 배경과 특징-역사기억의 왜곡과 성찰-」『한국사연구』129
현명철(2000)「한국 역사교과서의 근세한일관계사 서술」『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혜안
荒野泰典(1988)「大君外交體制の成立」『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北島万次(1990)『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校倉書房
_____(1995)『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高橋公明(1987)「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濟州島を中心として-」『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史學〉33
田中健夫(1975)「文祿・慶長の役と對馬」『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_____(1987)「倭寇と東アジア通商圈」『日本の社會史』, 岩波書店
仲尾宏(1997)『朝鮮通信使と德川幕府』, 明石書店
三宅英利(1986)『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文獻出版

www.kci.go.kr

要 旨

本稿では、扶桑社関連の中学校歴史教科書の中・近世韓日関係史で議論がされた倭寇、朝鮮の国号と通交、壬辰倭乱、朝鮮通信使と倭館に示された記述の特徴と問題点を韓国の中学校歴史教科書と比較分析することにより、これからの韓・日の歴史教科書の正しい記述の方向を提示しようとする。

まず、日本の教科書では倭寇は倭寇の発生原因、倭寇の構成員、朝日通交体制成立過程は説明されておらず、朝鮮の国号に関しては、朝鮮という国号の代わりに李氏朝鮮や李朝という用語を使用している。壬辰倭乱の侵略性は縮小化することを目的に侵略という用語の代わりに出兵と記述し、戦争の原因は隠蔽、戦争中に行われた人的·物的な被害を縮小している。また、通信使は、将軍襲職祝賀を強調し、日本の優位性の記述をしており、倭館に関しても宗氏の倭館に記述するなど、事実を歪曲または隠蔽・縮小している。

韓国の教科書には、倭寇と関連して倭寇の侵略と略奪だけを強調するのみ、倭寇の出没の背景と略奪の原因、性格と構成は無視して、倭寇を通じた当時の韓日関係史ではなく、崔瑩と李成桂の台頭という点だけが強調されており、韓国史の立場だけを強調している。壬辰倭乱は今までの叙述のように単純に壬辰倭乱の展開過程と影響だけ片付けるは技術から抜け出し、壬辰倭乱の性格解明を明確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倭乱の影響を記述するのにも古代文化の伝播のような文化的な優越性と恩恵的な立場がそのまま反映されている。通信使はすべてが朝鮮後期、江戸幕府の重要な特徴に限定にして記述しており、通信使の派遣で朝鮮側の立場だけを強調するより、日本の通信使の派遣が持つ意義と内容も客観的に記述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ような内容の韓・日教科書が、最終的には、学生に自国中心的、自国優越的な歴史認識を生み出すことになると思われる。これから韓日両国ともに自国の立場だけを強調した一方的な技術から離れて客観化していく技術が必要であり、両国関係の基本的な歴史事実を忠実に反映させて記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韓国と日本の間には、基本的に、特定の歴史の事実認識と意味解釈の違いがあるという現実も認める態度を持つことで、今後の歴史的発展も可能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歴史教科書、倭寇、朝鮮の国号、壬辰倭乱、朝鮮通信使

투　　고：2013. 8. 31
1차 심사：2013. 9. 14
2차 심사：2013. 10. 5

www.kci.go.kr